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시간부산 대조 연구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LV BI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한·중 시간부사 대조 연구

지도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LV BIN

LV BI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2월 23일



위원장 문학박사 채영희 (인)

위 장 문학박사 권성미 (인)

위 장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목 차

*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선행 연구	3
3. 연구대상 및 방법	7
II. 한·중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	9
1. 시간부사의 개념	9
2. 한국어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11
3. 중국어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17
III. 한·중 시간부사 대조 분석	20
1. 시간부사 유의어 선정	21
2.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분석	32
2.1 ‘지금/이제’--‘在/正在’의 대조 분석	33
가. ‘지금/이제’의 대조 분석	33
나. ‘지금/이제’의 중국어 대조	42
2.2 ‘아까/방금’--‘剛才/剛/才/剛剛’	52
가. ‘아까/방금’의 대조 분석	52
나. ‘아까/방금’의 중국어 대조	59

IV. 결론	72
참고문헌	75
국문초록	81



<표 목차>

【표 1】 김민수(1971) 시간부사의 분류	13
【표 2】 홍중선(1991)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14
【표 3】 손남익(1995)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15
【표 4】 민현식(1999)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15
【표 5】 서정수(2005) 시간부사 분류	17
【표 6】 黃伯榮, 廖序東(1999)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18
【표 7】 陸儉明, 馬眞(1999)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20
【표 8】 교재의 시간부사 분석	21
【표 9】 시간부사의 제시 양상	23
【표 10】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나온 시간부사	23
【표 11】 시간부사 중복 어휘	25
【표 12】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모형」 시간부사 어휘	26
【표 13】 시간부사 중복 어휘	27
【표 14】 유의어의 쌍 분석	27
【표 15】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의 실험 분석	28
【표 16】 선정된 시간부사 유의어의 쌍	29
【표 17】 선정된 시간부사 사용 빈도	30
【표 18】 한중 시간부사의 대응 양상	32
【표 19】 ‘지금/이제’의 사전적 정의 분석	34
【표 20】 말뭉치에서 나타난 ‘지금/이제’의 사용양상	38
【표 21】 ‘지금/이제’의 변별 기준	41
【표 22】 ‘지금/이제’의 대응되는 중국어	43
【표 23】 ‘在/正在’의 사전적 정의	44
【표 24】 ‘지금/이제’와 ‘在/正在’의 대조 분석	50

【표 25】 ‘아까/방금’의 사전적 정의	53
【표 26】 ‘아까/방금’의 변별기준	58
【표 27】 ‘아까/방금’의 대응되는 중국어	60
【표 28】 ‘剛才/剛/才/剛剛’의 사전적 정의	61
【표 29】 ‘아까/방금’과 ‘剛才/剛/才/剛剛’의 대조	69



A Comparative Study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LV B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aper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 adverbs that was selected.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help Chinese learners understand the meaning of time adverbs and correctly grasp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of the adverbs. Provide the helpfulness for Chinese learners.

Firstly, the paper presented the purpose and the necessity. It also showed the research object and research method. Moreover, we have searched and discussed the education content structure of education angle and the content of time adverbs in Korean textbooks.

Second, the paper present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classified the concept and types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and explained the comparison of time adverbs in Korean and Chinese.

Thirdly, we extracted the time adverbs that appeared together in four Korean textbooks and di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International standard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n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and 민현식(1999)'s classification criteria, '지금/이제' and

‘아까/방금’ are selected as the synonym of this paper. At last,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dictionary and the previous researches, analyzed and concluded the mea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verbs ‘지금/이제’- ‘在/正在’ and ‘아까/방금’-‘剛剛/剛才/才/剛’ in Korean and Chinese.

Finally, after conclusion the time adverbs that was selected through the definition of the dictionary and the previous researches, supposed that it will be more effective and easier for Chinese and Korean learners who learning time adverbs. people who haven’t spoken to Chinese think the Chinese language is exactly the same as Korean, they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Chinese language in it’s characteristics. So the research materials on these are needed. Based on the conclusion, this paper hopes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theory and education.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에 따라 시간 표현은 다르다. 중국어는 고립어인데 반하여 한국어는 교착어이다. 양국 언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차이점도 많다. 근년에 한중 양국은 문화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이 점점 늘어나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양국 간의 언어는 서로 다르므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뭐가 어렵다고 물어보면 시제나 조사, 동사, 형용사, 높임법 등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은 양국 언어는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며 차이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 중국인 학습자 가장 흔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부사이다. 부사는 통사적으로 볼 때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문장에서 부사가 없으면 감정이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시간부사는 문장 속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부사 중에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는 문법이나 활용적인 측면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이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 시간부사의 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

하기 때문에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혼동을 일으켜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는 일대일 대응되는 것도 아니다. 한 언어 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유의어들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사용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곧”과 “이따가”는 미래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지만 중국어의 “馬上” 하나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立刻”, “馬上”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 된다. 또한 “곧”과 “바로”도 중국어의 “立刻” 하나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立刻”, “馬上”, “就要”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된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現在”만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現在”, “目前”, “如今”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대응되며 “즉시”와 “당장”도 마찬가지로 “馬上”만의 단어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隨時, 立刻, 馬上” 두 개의 단어로 대응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할 때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한편, 외국인 학습자는 그 외국어를 모국어로 모국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목적이다. 그런데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그 외국어의 문법 규칙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규칙을 한 문장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장에서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생산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한국어 시간 부사도 마찬가지로 특정한 규칙이 있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는 문장과 상황에 맞게 유의어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외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어에 대해 직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의어의 의미 차이와 변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두껍다/두텁다’, ‘서늘하다/시원하다’, ‘뜻밖에/의외로’를 보면 한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유의어들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은 의미차이

를 모르고 구별 방법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의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차이와 변별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와 차이를 정리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에 대한 비교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은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를 대조하여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최근에 한중 양국 언어의 대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며, 한중 두 언어의 피동문 대조, 사동문 대조, 그리고 형용사 대조, 어순 대조 등 있었는데 이같이 통사론적, 의미론적, 또 음운론적 측면에서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시간부사에 관한 구체적인 대조연구의 성과가 많지 않다.

한·중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주로 한중 시간부사 교육, 한중 시간부사 대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한·중 시간부사 관한 논의는 최건(2002), 오옥매(2004), 劉巧云 (2007), 최경아(2007), 김춘화(2009), 웅문도(2011), 양단(2011), 곽풍(2012), 황혜려(2012), 최옥춘(2013), 한학철(2013), 강준영(2013), 고산(2013), 진희릉(2015), 최경아(2007), 한학철(2013) 등이 있다.

강현화(2001)에서는 “빈도를 나타내는 유의 시간부사인 ‘때로-이따금-가끔-간간 이’, ‘늘-항상-언제나’ 등을 대상으로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을 바탕으로 치환 검증법을 통해 의미 변별 정보를 밝히고 ‘격자틀’과 ‘정도비교선’을 활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崔健 (2002)에서는 “시간부사어 ‘항상’과 ‘經常’, ‘줄곧’과 ‘壹向, 壹直’, ‘방금’과 ‘剛, 剛才’에 대한 대조연구와 ‘이미’, ‘벌써’등이 중국어에서의 대응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오옥매(2004)에서는 “공시적 시각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現在’의미를 대조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현재 시간의미의 문장에서의 기능, 위치를 고찰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現在’시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시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응관계를 논의하였다.

劉巧云 (2007)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시간부사 중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는 ‘아까, 방금, 금방, 이제’를 대상으로 위치분포를 조사하고 공기관계의 제약 및 담화기능에 대해 대조연구”를 하였다.

최경아(2007)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을 위해 현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 유의어의 현황을 기관별, 단계별로 비교하여 유의어 27 쌍을 선정하였으며 시간부사의 유의어군들의 변별적 자질을 분석하여 유의어의 공통 의미 정리하고 의미 자질 분석, 문법적, 활용적 특징에 대한 비교 분석, 연어 관계 활용을 통한 지도 등으로 시간 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춘화(2009)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의 의미를 대조 분석하여 의미, 결합기능, 통사기능 등 측면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제시하였다.

홍윤기(2009)에서는 “상부사를 지속상, 반복상, 순간상으로 분류하여 상

부사의 특성을 다루었다. 학습자들이 상부사의 상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메타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상부사의 상적 의미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최화정(2010)에서는 “출현 횟수, 의미, 시제 제약, 상 제약, 서법 제약 등의 면에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계속-내내-쭉-줄곧’, ‘다시-또-도로’, ‘아직-여태’, ‘우선-먼저’들을 비교하였으며 격자형 비교표, 정도 차이 비교표 등의 방법으로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을 구축하였다.

웅문도(2011)에서는 “ ‘벌써’와 ‘이미’의 여러 특징을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정리했는데 교육내용을 구축했으며 한국어 모어 학습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벌써’와 ‘이미’의 사용양상”을 살펴보았다.

양단(201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상 표현 방식 및 상 부사 분류를 제시하고 완료상 부사, 예정상 부사, 진행상 부사, 순서상 부사, 순간상 부사, 지속상 부사, 반복상 부사의 분류에 따라 한중 상부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곽풍(2012)에서는 “은희경(殷熙耕)의 『새의 선물』(중역본 『鳥的禮物』 3))과 신경숙(申京淑) 『외딴방』 4) (중역본 『單人房』 5)) 원본 및 중역본을 대상으로 소설에 출현된 시간부사를 활용하여 시간부사와 상부사 두 측면에서 한·중 시간부사의 특징을 밝히고 대응관계를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분석했다.

황혜려(2012)에서는 “한자어 시간부사와 유의관계 있는 한자어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사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10개의 한자어 시간부사를 사용실태 조사를 통하여 용어 시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어휘

목록』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 ‘아까’와 ‘금방’, ‘내내’와 ‘계속’, ‘자꾸’와 ‘자주’, ‘때때로’와 ‘가끔’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유의어군을 분석하였으며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예문 분석을 통해 한·중 시간부사를 대조하였다. 그리고 ‘아까/금방’과 ‘剛才/方才/剛才/剛剛/才/馬上’, ‘내내/계속’과 ‘始終/一直/永遠/連連/連續’, ‘자꾸/자주’ ‘老是/老/頻頻/常/常常/屢次’, ‘때때로/가끔’과 ‘間或/偶爾/時爾/時時/時常/不時’를 대조 분석”을 하였다.

한학철(2013)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 표현 중에서 과거시간을 나타내는 시간명사와 시간부사의 의미와 통사적 특성을 분석했으며 (“벌써/이미, 아까/방금”을 중심으로) 한중 언어의 시제제약 측면에서 대응관계를 제시하고 아울러 중국인 학습자들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가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유형화하고 오류원인을 밝히고 중국인 학습자들에 알맞은 시간부사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준영(2013)에서는 “어휘적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유의어를 분석하여 대응되는 중국어와 대조했다. “다시, 또, 바로, 지금, 아직, 여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말뭉치의 용례에서 나타나는 결합 구성 정보를 통해 유의어간의 의미를 변별했으며 한국어의 시간부사유의어를 대응하는 중국어가 어떤 의미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 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정확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고산(2013)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를 대조 분석하여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의 시간부사의 보이는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서 한중 시간부사의 시상 표현 기능 차이”를 밝혔다.

진희릉(2015)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 시간부사의 시제, 상과의 결합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 유의

어의 대조분석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한중 시간부사에 대한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 연구를 살펴보면 시간부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한중 시간부사 의미에 관한 대조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시간부사는 한자어를 한정하고 그 한자어는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여 단순히 한정되는 중국어의 의미적이나 시제제약 측면에서 대조하고 그치는 연구가 많았으며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해 의미적이나 통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대조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초중고급 단계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능력시험과 교재에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한중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시간부사 유의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 및 한국 내의 4개의 한국어 교재를 참조하여 시간부사 목록을 설정한다.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 어휘 목록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민현식(1999)의 분류에 따라 유형화했다. 유형별로 “지금-이제, 아까-방금” 2쌍의 시간부사 유의어를 선정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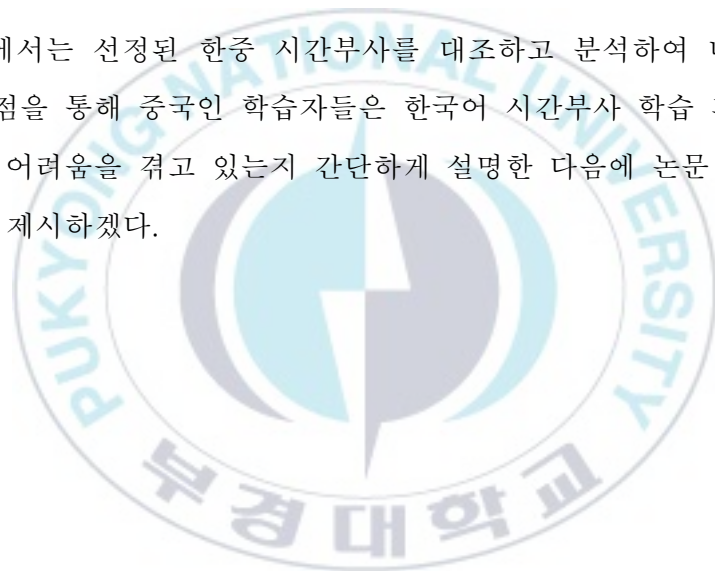
본 논문의 연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시간부사에 대한 양국의 대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를 공부할 때 나타나는 문제와 원인을 제시하고 연구 목적과 의미를 밝히겠다.

제 II 장에서는 한중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을 고찰하겠다.

제 III 장에서는 시간부사의 선정 방법을 제시하고 선정된 시간부사들의 의미 차이성을 밝히고 한중 시간부사들의 대응 관계를 제시하고 대조 분석을 하겠다.

제 IV 장에서는 선정된 한중 시간부사를 대조하고 분석하여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시간부사 학습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논문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제시하겠다.



Ⅱ. 한·중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시간 부사는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인식한 모든 시간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사에 의해 표현되는 의미론은 어휘의 의미에 의해서만 완전히 드러날 수 있으므로 부사의 의미만으로도 적절하게 분류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시제와 상과 시간부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고, 시간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연구와 유의 시간부사를 분석하고 변별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다(王路, 2011). 따라서 이 장에서 시간 부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 정의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각각 정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 부사의 비교도 검토해보겠다.

1. 시간부사의 개념

시간은 인류의 생활, 직업이나 노동 생산 등 많은 방면에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다. 먼저 ‘시간’의 개념을 살펴보겠다. 온영두(1985)는 “공간과 더불어 인간의 존재양상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언어에도 그에 대한 인식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시상(tenseandas-pect), 처격 (locative)범주(category)의 설정 등에서 보듯 문법의 주요과제가 되어 왔다”고 정의 하였다. 손남익(1995)은 “연속체를 비연속적인 체계로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 체계이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 (1999) “시간은 명사이고 (1)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 (2)시각(時刻) (3) 어떤

행동을 할 틈 (4) 어떤 일을 하기로 정하여진 동안 (5) 때의 흐름 (6) 『물리』 지구의 자전 주기를 재서 얻은 단위이다.”이론적으로 고전 물리학에서는 공간에서 독립한 변수 곧 절대 시간으로 다루어졌으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는 양자가 물리적 사건을 매개로 하여 사차원의 시공 세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까오위엔, 2014). 위의 선행연구에 의해 ‘시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은 첫째로 어떤 시각에서 다른 시각까지의 동안, 또는 그 길이다, 둘째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길이의 동안이다, 셋째 철학에서,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끊임 없이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간다고 생각 되는 것, 공간과 더불어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라는 의미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왕로, 2011).

시간부사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 어휘이며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이다. 시간 부사에 대해 정의 최초 시작은 최현배(1937)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응하는 정의는 최초 최현배(1937)부터이다. 최현배(1937)에서 시간부사는 “때어찌씨는 그 일이 들어남을 때로서 꾸미는 어찌씨”라고 하였고 권선옥(1985)도 “발화 문장에서 의미상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며, 문법적 범주로는 부사어로 기능하는 통어적 단위”라고 하였다. **조현선**(1986)은 “시간부사는 자연시간의 흐름선상의 시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 나타나는 부사로서 시각적인 의미가 짙게 암시되어지는 부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김선희(1987)는 “추상적인 시간의 체계나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시간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석규(1988)에서는 종래의 시간부사의 기준 설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간부사를 “첫 번째 기준으로써 일정한 시제를 표시하는 것, 즉, 과 거, 현재, 미래 중 어느 시제에 속하는 것과 어떤 일정한 시제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어느 시제에나 속할 수 있고, 어느 시제에나 속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다시 말하

면, 시제와 부관한 것”으로 나누었다. 홍종선(1991)은 “시간적 위치의 개념을 갖는 어휘들을 시간 부사”라고 하였다. 김태우(1992)는 역시 “발화 현장을 중심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는 시간부사라고 하였다. 김민수(1971)에서는 “시간부사용어는 어떤 서술의 시간을 표현하며, 시간부사나 체언의 부사격으로 이루어진다. 용언이나 서술격의 뜻을 제한한다.”그리고 서정수(1996)에서 “시간부사어란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였다.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성]이라는 공통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간어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간부사는 시제와 상과 밀접관계가 있고 시제와 상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시제나 상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보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문장의미에서 각기 다른 의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언어가 다르면 시간부사의 의미 영역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과 중국어 시간부사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

한국에서 1881년에 처음 프랑스 선교사들이 저술한 조선어 문법 (Grammaire Coreenne) 에서 시제의 용어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1890년 Underwood의 한영문법 에서 볼 수 있다. 1908년에 한국학자 최광옥의 대한문전 에서 처음에 국어 시제는 현재, 미래, 과거로 나누었다, 1910년 주시경의 국어 문법 에서는 “이때, 간때, 올때”라고 하여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분류하였다(만리, 2010). 한국에서 시간부사에 대한 구분을 여기서 분

류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의는 김민수(1971), 최현배(1937, 1985), 서정수(2005), 박덕유(2006), 손남익(1995)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김민수(1971)에는 “時間副用語는 어떤 서술의 시간을 표현하며, 시간부사나 체언의 副用格으로 이루어지고 용언이나 述格詞의 不達意의 뜻을 제한한다.”고 하였다.

최현배(1937,1985)에서는 “시간부사를 ‘때 어찌씨’라고 칭하였으며 “그 일이 들어 남을 때로서 꾸미는 어찌씨”라고 정의를 내렸다.

손남익(1995)에서는 “한국어에서 시간을 나타내 주는 기능을 하는 모든 부사를 시간부사 범주에 포함”시켰다.

서정수(2005)에서는 “시간과 관련되는 낱말로서 문장이나 절 또는 동사구를 한정하는 수식어”라고 하고 시간부사류 개념을 정의하였다.

박덕유(2006)에서는 “시간부사는 시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로서 반드시 시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시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부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시간성과 문장에서 기능과 연관되어 거론되어 왔다. 한국어 시간부사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위치상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한국어 시간부사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시제와 상과 관련하여 구분하였다. 이에 분류하는 대표적인 연구는 김민수(1971), 최현배(1971), 홍중선(1991), 손남익(1995), 민현식(1999), 서정수(2005)등이 있다.

김민수(1971)에서는 “시간부사는 그 술어의 세 시간 표현－ 현재, 과거, 미래와 일치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하위분류”하였다.

〈표1〉 김민수(1971)시간부사의 분류

過去時	아까(당일내), 벌써, 이미, 어느덧(미정)
現在時	곧, 방금
將來時	장차, 이따(당일내)

최현배(1961)에서는 “때 어찌씨(副詞) 에 대해 때의 점을 보이는 것과 때의 길이를 보이는 것,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그리고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때의 점을 보이는 것

가. 지난적: 그러께, 일찍, 그저께, 이미, 벌써, 어제, 하마나. 이적: 오늘, 이제, 방금, 금방, 인제,
다. 올적: 훗날, 내일, 차차, 다음

(2) 때의 길이(동안)를 보이는 것

항상, 늘, 오래, 잠시, 영구히, 얼핏, 잠깐, 곧

(3) 때의 앞뒤를 보이는 것

가. 앞선 때: 일찍, 먼저,
나. 같은 때: 한꺼번에, 함께, 같이
다. 뒤선 때: 다음, 나중

(4) 때의 번수를 보이는 것

번번, 가끔, 드디어, 매일, 아직, 자주, 처음, 매번, 비로소, 매양

홍종선(1991)에서는 “어휘 의미를 기준으로 시간부사를 ‘시점 시간부사, 시역 시간부사, 방향 시간부사, 반복 시간부사’ 4가지 하위분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2〉 홍종선(1991)에서의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시점 시간부사	순간성 시점	갑자기, 문득, 마침, 때마침
	비순간성 시점	오늘, 어제, 금방, 곧, 지금
시역 시간부사	한동안, 하루 종일, 한참, 언제나, 언제든지, 밤새, 잠깐, 밤새도록	
방향 시간부사	기준시 이전	먼저, 우선, 미리, 아직, 벌써, 이미
	기준시 이후	나중에, 앞으로, 이후로, 곧바로, 이답에
반복 시간부사	자꾸, 자주, 수시로, 또다시, 가끔, 간혹, 이따금, 때로, 때때로	

손남익(1995)에서는 “시간부사는 통사론적 자유부사 중의 한 유형으로서 시간부사를 과거시제 시간부사, 현재시제 시간부사, 미래시제 시간부사, 또한 순간성 시간부사, 지속성 시간부사, 무시제형 시간부사”로 처리하였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손남익(1995)에서의 시간부사의 하위분류

시간 부사	과거시 제	벌써, 이미, 방금, 아까, 아직, 진작, 막, 지금껏
	현재시 제	요즘, 지금, 현재, 당금
	미래시 제	금후, 당장, 이후, 향후, 어서, 얼른, 이따, 조만간
	순간성	갑자기, 문득, 잠시, 그제야, 곧바로, 별안간, 불시에
	지속성	내내, 당분간, 늘, 겨우내, 줄곧, 한참, 때때로, 밤낮
	무시제 형	드디어, 언제든지, 어느새, 마침내, 언제, 먼저, 미리, 얼마간, 언제나, 우선, 오래도록, 일찍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관련 시간부사와 상 관련 시간부사로 나누고 시제 관련 시간부사를 시제부사, 상 관련 시간부사를 상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시제부사는 기본 시제부사와 부차 시제부사로 세분화하고 기본 시제부사는 선행시(과거), 동시 또는 일치시(현재), 후행시(미래), 미지시, 부정시 등으로 나누고 부차 시제부사는 직전 선행시와 직후 선행시로 나누었다. 상 시제부사를 문법상의 시간부사와 어휘상의 시간부사로 나누었으며 다시 어휘상의 시간부사를 순서상, 순간상, 지속상, 반복상으로 하위분류하였고 문법상의 시간부사를 완료상과 진행상”으로 하위분류하였다.

〈표4〉 민현식(1999)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유 형		부 사
손남 익 (195	시 간 부	과거시제	진작, 갓, 지금껏, 아까, 금방, 종래, 막, 이제까지, 방금, 이미, 벌써, 요사이, 아직, 여직껏,

5)	사	현재시제	현재, 당금, 지금, 요즈음,	
		미래시제	향후, 금후, 조만간, 당장에, 얼른, 이따, 어서	
		순간성	홀연, 갑자기, 잠시간, 곧바로, 잠시, 그제야, 언뜻, 냉큼, 불시에, 대번에, 별안간, 문득,	
		지속성	줄곧, 겨우내, 종일토록, 그사이, 잠깐, 내내, 늘, 잠간, 당분간, 온종일, 대대로, 어언, 밤새, 밤낮,	
		무시제형	일찍, 난생, 우선, 드디어, 마침내, 오래, 마침, 오래도록, 먼저, 얼마간, 언제, 미리, 언젠가, 어느덧, 언제나, 어느새 등	
	양태부사	거리성 양태부사	멀리, 멀찍, 가까이	
		방향성 양태부사	세로, 그리, 거꾸로, 높이, 가로세로	
빈도성 양태부사		또, 가끔, 때때로, 다시, 간간이, 간혹, 더러, 거듭, 단박, 그때그때, 단김에, 날마다,		
민현식 (1999)	시제부사	기본시제부사	선행시 (과거)	지난해, 전에, 어제, 작년, 일찍이, 옛날, 그제
			동시	
			또는 일치시 (현재)	지금, 요즈음, 이제, 올해, 오늘
			후행시 (미래)	모래, 후에, 내일, 앞으로, 내년, 장차
			미지시	어느 때, 어느 날, 언제
			부정	아무 날, 아무 때

			부차 시제 부사	시		
				직전	조금 전, 갓, 방금, 아까, 금방	
				선행시		
				직후	조금 후, 금방, 이따가, 곧, 바로, 즉시	
	선행시					
	상 부 사	어 휘 상	순 서 상	선	시초	원래, 비로소, 처음, 본래, 최초
				행	비교	우선, 먼저
				상	사전	어서, 미리, 일찍, 앞서,
				동	일시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시	적시	적시에, 때마침, 마침,
				상	상태	더불어, 함께, 같이

서정수(2005)에서는 “부사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부사유어를 자유 부사류어와 제약 부사류어로 나누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류, 즉 시간부사류어는 자유 부사류어에 속하며 시점/순간 부사류어, 시간대/시역 부사류어, 시작점 부사류어, 동안 부사류어, 찾기 부사류어, 차례 부사류어”로 하위분류하였다.

〈표5〉 서정수(2005)에서의 시간부사 분류

시점/순간 부사류어	느닷없이, 방금, 갑자기, 대뜸, 막, 이제, 금방, 당장, 즉시, 돌연, 이내, 시방, 당장, 곧, 아까, 접 때, 이따가, 순간적으로
시간대/지역 부사류어	요즘, 옛날에, 근래에, 과거에, 새벽에, 종래, 오 전에, 오늘, 원래, 어제, 일찍이, 본디, 본래, 오늘 날, 앞으로, 장래에
시작점 부사류어	아침부터, 이제부터, 지금부터
동안 부사류어	한참, 오랫동안, 일 년 내내, 끊임없이, 영원히, 영구히, 하루 동안, 며칠간, 잠간
잦기 부사류어	늘, 항상, 항시, 가끔, 때때로, 여전히, 줄곧, 날 마다, 해마다, 자주, 간혹, 이따금, 왕왕, 번번히, 자꾸, 누차, 수시로
차례 부사류어	5이미, 차차, 벌써, 처음에, 아직, 아직껏, 점차, 여태, 점점, 나중에, 미처, 당초에, 날로

시간부사의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여러 의견이 존
재하지만 시간부사의 분류는 다양하고 불분명하여 하나의 합의점을 도출하
여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명백한 정의가 없고 개념이 모호하다.

3. 중국어 시간부사 개념 및 유형

중국어의 시간부사에 대한 연구는 黎錦熙(1924)의 『新著國語文法』 로
부터이다. 黎錦熙(1924)에서는 “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상세한 분류와 묘사”를 하였다. 黎錦熙는 “시간부사
를 과거, 현재, 미래, 부정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 부
정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를 ‘연속, 촉박함, 빠름과 느림, 갑작스러움을 나

타내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부사인 '常常, 往往, 時時'는 앞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부사의 의미로 볼 때, 사물 혹은 동작 발생, 발화의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부사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동작발생, 변화의 중복과 빈도를 표시하는 중복 빈도 부사로 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곽풍, 2012).

그 이후에 王力(1943)에서 "시간부사를 더 세부적으로 8유형으로 분류"하였다. 呂叔湘 (1942)에서는 "제한어(부사) 7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시간 제한어는 바로 시간부사"이다.

太田辰夫 (1958)에서는 "부사를 역사적으로 현대 중국어의 문법을 고찰함으로서 부사를 7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 시간부사는 또 다시 '과거, 현재, 미래, 부정시, 불변, 반복과 갯기' 7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趙元任 (1968)에서는 "부사를 9유형으로 유형화했는데 그 중에 시간부사는 음절별로 단음절어와 다음절어"로 나누었다.

黃伯榮, 廖序東 (1997)에서는 "시간부사를 시가의 완료여부, 발생시간, 시간의 길이, 사건의 중복, 사건의 순서와 사용빈도 6유형"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표6> 黃伯榮, 廖序東 (1997)의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완료 여부	已、已經	이미
발생 시간		
과거 시점/순 간	曾、曾經	예전에
	剛、才、剛剛	좀 전에, 아까, 방금
	正在、正、在	...하고 있다.

진행 미래	將、將要、就、就要	이따, 금방, 곧,
시간의 길이	立刻、馬上、終于, 頓時	드디어, 즉시, 바로, 당장
사건의 중복	常、常常、時常、時 時、往往	항상, 자주, 자꾸, 흔히
사건의 순서	漸漸、早晚	조만간, 점점
사건 빈도	再、屢次、偶爾, 再 三	가끔, 다시, 누차

陸儉明·馬眞(1985)에서는 시간부사 분류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들은 먼저 “어떤 특정한 시간 즉 과거, 현재 혹은 미래의 일만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간부사를 정시 시간부사와 부정시 시간부사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정시 시간부사에 대해서는 나타내는 시태에 따라 “과거를 나타내는 시태와 현재를 나타내는 시태,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는 시태”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매 유형을 또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했는데 부정시 시간부사에 대해 나타내는 시태의 다름에 따라 18개의 하위 단위로 분류하였다(郭楓, 2012). 즉 “선후 표시, 수시 표시, 연속 표시, 최종 표시, 완만 표시, 단시간 표시, 진행 표시, 돌연을 나타내는 것” 등이 있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陸儉明·馬眞(1999)의 중국어 시간부사 분류

정시 (定時) 시간부사	과거(過去)	① 曾이따, 曾經 ② 業經, 業已 ③ 曆來, 從來, 素, 素來, 從, 一向, 向來 ④ 到底, 畢竟, 終於 ⑤ 一度
	현재(現在)	至今
	미래(未來)	① 趁早, 及早, 早日, ② 早晚, 終將, 總歸, 遲早, 終歸, 必將, 終 究 ③ 先行



부정 시 (不定 時) 시간 부사	表示已然 (이미 이러함)	早就, 早已, 已經
	表示未然(아직 어떻게 될지 모름)	行將, 就要, 即將
	表示進行(진행)	在, 正在, 正,
	表示短時(단기)	馬上, 立刻, 剛剛
	表示突發(돌발)	驟然, 猛然, 忽然
	兼表示突發和短時 (돌발과 단기)	一下子, 立時, 頓時
	表示早晚(조만간)	才, 便, 就
	表示先後(선후)	隨即, 事先, 先
	表示常偶 (언제나, 우연히)	有時, 偶爾, 常常
	表示永暫 (영원히, 잠시)	姑且, 暫且, 永遠
	表示永常 (영원히, 항상)	一直, 總, 老
	表示緩慢(느림)	日見, 漸次, 漸漸
	表示同時(동시)	一同, 一齊, 同時
	表示隨時(수시로)	隨時
	表示守時(준수)	按期, 按時
	表示延續(연속)	依舊, 仍然, 還是
	表示最終(최종)	終究
	表其他(기타)	臨, 現

위에 한중 시간부사의 선생 연구들을 통해 시간부사 개념과 시간부사의 하위분류를 살펴보았다. 주로 시간부사의 하위분류를 통해 한중 시간부사의 차이를 많이 보였다. 시제부사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과거시제, 현재시제, 미래시제’로 분류된다. 상부사의 경우에는 한국어는 중국어와 같이 ‘완료상, 예정상, 진행상, 순서상, 순간상, 지속상, 반복상’등 7

가지 분류된다.

Ⅲ. 한·중 시간부사 대조 분석

1. 시간부사 유의어 선정

가. 한국어 초중급 교재 시간부사 제시 현황

본 절에서는 한국 내의 4개 대학 기관에서 출판하여 사용되고 있는 초중급 교재에서 나온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초급 중급별로 제시 특징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대학 기관별로 초급 중급 교재에서 나온 부사와 시간 부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대학 기관 초중급 교재의 시간부사

교재	초급	중급
서강대	내일, 다시, 빨리, 지금, 이제, 오늘, 요즘, 천천히, 항상, 금방, 바로, 계속, 드디어, 아까, 처음, 자주, 벌써, 가끔, 그때, 갑자기, 이따가, 아직	곧, 당장, 얼른, 자꾸, 한참, 점차, 여전히, 미리, 방금, 앞으로
연세대	지금, 날마다, 모레, 어서, 요즘, 잠깐, 오래, 우선, 종일, 벌써, 먼저, 자주, 아까, 오늘, 아직, 매주, 빨리, 즉시, 바로,	또, 어저께, 당장, 영원히, 나날이, 계속, 마침, 어느새, 한꺼번에, 내내, 드디어, 갑자기

	금방, 이따가, 다시, 곧, 어제, 이제, 방금,	
서울 대	먼저, 모레, 이제, 자주, 일 찍, 지금, 요즘, 아직, 다시	오래간만, 아까, 벌써, 매 주, 나중에, 곧, 그동안, 바로, 오랫동안, 이따가, 마침내, 가 끔, 금방, 결국, 자주, 자꾸, 방 금, 당
경희 대	그동안, 그저께, 나중에, 아 까, 벌써, 바로, 드디어, 어제, 이제, 가끔, 계속, 지금, 아	최근, 방금, 드디어, 금방, 막, 당장, 갑자기, 내내, 어느 새, 얼른, 즉시, 점차, 곧, 바로

<표8>를 보면 초급 시간부사의 수는 『연세대』가 가장 많고 『서울대』가 가장 적다. 『연세대』 초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부사의 수도 많으며, 반면에 『서울대』 초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의 양도 적고 시간부사도 적게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중급 시간부사의 수는 『서울대』가 가장 많고 『서강대』가 가장 적다. 『서울대』 중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부사의 수도 많은 반면에 『서강대』 중급 교재는 다른 대학 기관 교재에 비해 어휘의 양도 적고 시간부사도 적게 제시되고 있다.

나.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타난 시간부사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제시한 부사 및 시간부사 양상을 살펴본 후 각 대학 기관별로 어휘 목록에 들어 있는 시간부사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먼저 어휘 목록에서 부사 및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부사 및 시간부사에 대한 제시 양상

시 간 부 사	
초급 (29개)	오늘, 모레, 다시, 먼저, 미리, 바로, 벌써, 곧, 방금, 가끔, 갑자기, 계속, 언제, 언제나, 지금, 이제, 아직, 아까, 잠깐, 잠시, 우선, 이따가, 어제, 일찍, 자주, 늘, 평소, 그저께, 그동안
중급 (37개)	언젠가, 얼른, 여전히, 금방, 어느새, 내내, 당분간, 끊임없이, 끝내, 결국, 우연히, 영원히, 요즘, 이제야, 이미, 자꾸, 조만간, 한꺼번에, 일단, 쭉, 매달, 매주, 매년, 한창, 해마다, 종종, 막, 때로, 때때로, 드디어, 마침, 마침내, 즉시, 점점, 당장, 점차, 오랫동안

〈표9〉를 보면 초급에서 제시한 시간부사는 29개이고, 중급에서 제시한 시간부사는 37개이다.

위에 각 기관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나온 시간부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각 기관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서 나온 시간부사

한국어 교재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목록에 수록된 시간부사
서강대	초급(21개)	다시, 지금, 이제, 오늘, 바로, 계속, 아까, 벌써, 자주, 가끔, 갑자기

	중급(7개)	자꾸, 얼른, 여전히, 당장, 방금
연세대	초급(22개)	지금, 모레, 우선, 잠깐, 벌써, 이제, 먼저, 저주, 오늘, 아직, 어제, 아까, 바로, 다시, 곧
	중급(11개)	영원히, 어느새, 마침, 드디어, 내내, 한꺼번에, 당장, 방금
서울대	초급(9개)	먼저, 모레, 이제, 자주, 지금, 일찍, 아까, 아직, 다시
	중급(16개)	매주, 아침내, 금방, 방금, 결국
경희대	초급(11개)	아까, 벌써, 바로, 어제, 가끔, 계속, 이제, 지금
	중급(13개)	드디어, 금방, 막, 방금, 당장, 내내, 어느새, 점차, 얼른

<표10>를 보면, 『서강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21개인데 그 중 11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7개인데 그 중 4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연세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22개인데 그 중 13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7개인데 그 중 7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9개인데 그 중 8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16개인데 그 중 4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의 초급 시간부사는 11개인데 그 중 6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중급 시간부사는 13개인데 그 중 8개가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목록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많은 시간부사 어휘가 학습되고 중급까지 대부분의 어휘들은 학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 실려 있는 시간부사 어휘가 같지 않아 위에 표를 참고로 중복되는 시간부사 어휘를 추출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1> 과 같다.

<표 11> 시간부사 중복 어휘

지금, 바로, 자주, 먼저, 방금, 이제, 금방, 다시, 아까, 아직, 곧, 벌써, 당장
--

대부분의 시간부사는 초급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같은 시간부사라

하더라도 교재에 따라, 다른 세 교재에 달리 나타나기도 하였다. 네 교재 모두 공통으로 제시되어 있는 어휘는 13개로 전체 중복 어휘의 1/3 수준이다.

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의 시간부사

앞서 교재별과 한국어 능력 시험에 제시된 시간부사 어휘 목록과 중복되는 시간부사 어휘 목록을 살펴보았는데 같은 시간부사라 하더라도 교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김성화, 2003). 이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는 2010년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 연구를 구체화하여 교수요목과 표준 교육과정의 변이형을 개발함으로써 표준 교육과정의 범용화, 범세계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였으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어휘 부분은 빈도를 기준으로 1차 자료를 추출하고, 2차 자료로 한국어 교육용 어휘 목록을 입력한 후, 세 번째 단계로 1, 2차 자료를 통합 합산하고, 전문가 5인의 평정을 거쳐 어휘 등급을 조정하여 발행하였다(김정숙, 2015).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목록 11,118개중 시간부사를 추출하여(국립국어원, 2011)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시간부사 어휘

초급	중급	고급 이상
또,오늘,다시,매달,바로,오래,아직,때때로,이미,해마다,어제,이제,아까,지금,잠깐,곧,어서,먼저,얼마나,일찍,현재,언제,우선,계속,때로,매일,갑자기,미리,늘,가끔,주로,자꾸,잠시,항상,언제나,빨리,자주,벌써	언젠가,오래도록,금방,한꺼번에,끊임없이,급속히,어느새,막,매번,줄곧,급격히,이따금,내내,앞서,서서히,또다시,이내,곧바로,곧잘,재빨리,당분간,방금,급히,한창,일찍이	거듭,시방차차,오래오래,난생,금세,신속히,수시로,단번에,일찌감치,시급히,날로,다시금,조만간,나날이,인제,여태,시종,틈틈이,곧이어,매월,번번이,영영,불현듯,즉각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단계」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목록 11,118개 중 시간부사 어휘는 초급 38개, 중급 25개, 고급 이상 25개, 총 89개가 제시되고 있으며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중, 고급 이상의 시간부사 어휘가 한국어 교재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으로 삼은 어휘의 수가 중급에서는 3,007개, 고급 이상에서는 6,428개로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국립국어원, 2011).

앞서 급수별 시간부사 중복 어휘를 정리한 <표 11> 과 <표 12>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시간부사 어휘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시간부사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시간부사 중복 어휘

지금, 바로, 자주, 먼저, 방금, 이제, 금방, 다시, 아직, 아까, 곧, 벌써, 당장
--

교재의 급수별 시간부사 중복어휘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추출한 시간부사 어휘 중 중복되는 어휘는 총 13개로 나타났다.

또한, 위에 대학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에 의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시간부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간부사가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빈도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외국어대학』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 초급 15명, 중급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위에 대학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에 공통으로 제시된

시간부사 중에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 6쌍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유의어의 쌍은 다음과 같다.

<표 14>유의어의 쌍

지금/이제, 금방/바로, 벌써/이미, 아까/방금, 자주/자꾸, 먼저/우선
--

설문조사 내용은 담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예시:

- | |
|---|
| <p>(1) 가: (지금/이제) 뭐 하고 있어요?
나: 뭐 좀 썼는데 (지금/이제) 시간 다 됐으니 그만 집에 가야겠어요.</p> <p>(2) 가: (금방/바로) 시장에 갈까요?
나: 네, 근데 먼저 가세요, 전 보희랑 (금방/바로) 따라 갈게요.</p> <p>(3) 가: (벌써/이미) 끝난 거야? 난 방금 기회 놓친 거 너무 후회돼.
나: 지금 후회해도 (벌써/이미) 어쩔 수 없다.</p> <p>(4) 가: (아까/방금)부터 왜 계속 나를 쳐다봐?
나: 내가 언제? 난 (아까/방금) 책을 보고 있었는데.</p> <p>(5) 가: 이 음악은 내가 (자주/자꾸) 듣던 곡이야.
나: 넌 왜 (자주/자꾸) 옛날 노래 듣고 그래.</p> <p>(6) 가: 제일 (먼저/우선) 실수한 사람 누구세요? 회사가 만약 해고하려 한다면, (먼저/우선) 서면으로 통지할 거예요.</p> |
|---|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산외국어대학』 초중급 중국인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5〉 『부산외국어대학』 초중급 중국인 학생들의 실험 결과

	시간부사	초급	중급
정 답 률 (%)	지금/이제	26.7	70.0
	금방/바로	26.7	75.0
	벌써/이미	40.0	80.0
	아까/방금	13.3	70.0
	자주/자꾸	33.3	90.0
	먼저/우선	40.0	85.0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6쌍의 시간부사 중에 초급에서 ‘벌써/이미’와 ‘먼저/우선’의 정답률은 40%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자주/자꾸’의 정답률은 33.3%로 나타났고 ‘지금/이제’와 ‘금방/바로’의 정답률은 26.7%로 나타났다. 그 반면에 초급 학습자들이 오류를 나타내는 확률은 순서대로 ‘아까/방금’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 ‘지금/이제’와 ‘금방/바로’ 같은 비율로 나타난 다음에 ‘자주/자꾸’, ‘벌써/이미’와 ‘먼저/우선’로 나타났다.

중급에서 볼 때 정답률은 순서대로 ‘자주/자꾸’, ‘먼저/우선’, ‘아까/방금’, ‘금방/바로’, ‘지금/이제’와 ‘벌써/이미’로 나타난 반면에 중국 학습자들은 이 6쌍 시간부사에 대해 오류를 나타난 확률은 순서대로 ‘지금/이제’와

‘아까/방금’, ‘금방/바로’, ‘벌써/이미’, 그 다음 ‘먼저/우선’, ‘자주/자꾸’로 나타났다.

위에 실험 결과에 따라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부사가 추출되었고 이에 근거로 본 논문의 유의어 쌍을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민현식 (1999)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음 <표16>과 같다.

<표16> 시간부사 유의어 쌍

기본 시제부사	동시 또는 일치시(현재)	[1] 지금 – 이제
부차 시제부사	직전 선행시	[2] 방금 – 아까

또한 본 논문은 앞에 각 대학교 교재에 공통으로 나온 시간부사를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검색해서 사용빈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17>와 같다.

<표17> 선정된 시간부사 사용빈도

단어	빈도(총/부사)	예
지금	46648/6678	1)나는 17살인데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2)저는 지금까지 12 나라를 여행해 왔습니다. 3)아, 지금 잘 모르겠어요. 4)지금 아마 탐서하고 있어요. 5)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28591/729	1)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2)이런 친구는 이제 없어요. 3)이제 재미있었어요.
방금	1302/340	1)왜냐하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방금 졸업한 학생끼리 높아지기 때문이다. 2)이번 날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음식이 방금 나왔다. 3)특히 방금 대학교를 졸업할 학생은 자기의 취미와 능력에 관심을 해야 한다. 4)방금 14살 생일이 지나면서 서울대 입학 통지서를 받은 A의 가족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까	4371/420	1)저출산이 워낙 아까 말했다싶이 고령화가 제일 심화되니 문제인 거 같대요. 2)그래서 아마 어 아까 쫓 저은 일을 생겨서 그런 거 같아요. 3)어 영어로 비누를 뜨파는 소프은 <u>35</u> <u>35</u> 설명드렸던 사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괜찮음. 나 아까 쓰기 시험도 썼어요.

말뭉치에서 보면 ‘지금’이 쓰인 용례46648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6678개이다. ‘이제’의 경우 쓰인 용례28591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729개이다. ‘방금’이 쓰인 용례1302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340개이다. ‘아까’가 쓰인 용례4371개 중에서 시간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420개이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시간부사의 사용빈도를 보면 ‘지금/이제, 아까/방금’은 시간부사로 일상생활에서 학습자들에게 흔히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제’의 경우에는 보통 현재시점, 바로 이때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아까/방금’의 경우에는 미래시제, 조금 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뜻 이외에도 ‘지금/이제, 아까/방금’에 대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조진희(2005)에서는 “6종의 교재에서 유의 관계에 있는 시간부사 ‘지금, 이제’, ‘벌써, 이미’, ‘당장, 금방, 곧’, ‘아까, 방금, 금방’을 선정하여 말뭉치를 활용해 통사 정보와 의미 • 화용 정보”를 제시하고, 여위령(2012)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세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 ‘지금, 이제’를 대상으로 그 의미 차이를 밝히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부사와 상부사로 나누었는데 ‘아까’와 ‘금방’은 시제부사의 하위분류인 직전 선행시에 속한다.”고 하였다. 서정수(2005)에서는 “‘아까’와 ‘금방’이 시간 자유 부사류어의 하위분류인 시점/순간 부사류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유의어 학습을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한 의미 변별 연구와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많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그 의미를 변별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거나 특정 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대조하여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지금/이제, 아까/방금’의 분석을 통해 한중 시간부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를 네이버 한국어 사전에서 대응하는 중국어 부사를 검색한 후 『중한대사전』에서 재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다음 <표18>과 같다.

<표18> 한중 시간부사의 대응 양상

	한국어	대응 중국어
[1]	지금	在, 正在
	이제	在
[2]	방금	才, 剛剛, 剛
	아까	剛才, 才

위에서 진행한 사전적 검토와 교재분석을 통하여 본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 시간부사와 선정된 한국어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다음과 같다.

[1] ‘지금, 이제’-- ‘在, 正在’

[2] ‘아까, 방금’-- ‘剛才, 剛, 才, 剛剛’

2.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분석

먼저 시간부사 유의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된 시간부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의미론적 측면과 통사론적 측면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이미지를 변별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시간부사를 대조하여 한중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겠다.

2.1. ‘지금, 이제’-- ‘在/正在’의 대조 분석

가. ‘지금/이제’의 의미 분석

“지금”과 “이제”는 제2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인 표현 어휘, 즉 학습자가 실제로 말하고 쓸 수 있는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어들로서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학습자들이 구별하기 어렵고 들리기 쉬운 단어들이라고 하였다.(장영미, 2010)

그리고 ‘지금’과 ‘이제’에 대해 선행연구 좀 있었는데 만리(2010)에서 ‘지금과 바로’에 대해 대조분석을 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강춘영(2013)에서 ‘지금/바로, 다시/또 등’을 단순히 대조하고 끝났으며 황혜려(2012)에서 ‘지금, 현재, 본래, 원래’ 현재시제를 간단하게 대조하였다. 그리고 곽풍(2012)에서 ‘지금/이제’에 대해 간단하게 대조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진희룡(2014)에서 ‘지금/이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되는 중국어도 간단하게 대조하였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지금/이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별로 없고, 또한 한국어 대조하고 대응되는 중국어도 분석하고 대조하는 연구 더 보기 힘든 상황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지금/이제’ 먼저 대조

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된 지를 제시하고 한중 시간부사에 대해 차이점과 공통점은 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사전적 정의를 볼 때는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조선어대사전』에서는 ‘지금/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표19〉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이제’의 사전적 의미

	지금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	1)〈부사〉“말하는 바 로 이 때 2)〈명사〉말하는 바로 이때	1)〈부사〉 말하는 바로 이 때에,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 낌을 준다. 2)〈명사〉 말하는 바로 이 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낀 을 준다.
연세한국어 사전	1)〈부사〉바로 이제, 이 시간에 2)〈부사〉현재, 오늘 날에 이르러 3)〈명사〉이때 4)〈명사〉오늘날, 현 재	1)〈부사〉바로 지금. (말하 고 있는) 이때에.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3)〈명사〉(말하고 있는 바 로)이 때. 지금 이 시간. 4)〈명사〉오늘날. 지금의 시 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부사〉 이 시간에	〈부사〉 1)〈부사〉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이때에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조선어대사 전	1)〈부사〉예로부터 이 제에 이르기 까지. 2)〈명사〉 바로 이 시 각. 3)〈명사〉 말하는 바 로 이때. 4)〈명사〉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1)〈부사〉지금 또는 바로 지금. 2)〈부사〉지금부터 앞으로. 3)〈명사〉 말하는 바로 이 때. 4)〈명사〉 오늘날 또는 지 금 시기.

〈표19〉에서 ‘지금’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조선어 대사전」, 「연세한국어 사전」에서 명사로 쓰일 때 ‘말하는 바로 이때’, ‘현재’, ‘오늘날’,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 ‘바로 이 시각’,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부사로 쓰일 때는 ‘바로 이제’, ‘이 시간에’, ‘말하는 바로 이때에’, ‘오늘 날에 이르러’, ‘지금부터 앞으로’,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조선어 대사전」, 「연세한국어 사전」에서 명사로 쓰일 때 ‘말하는 바로 이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 이 시간’, ‘오늘날 또는 지금 시기’, ‘지금부터 앞으로’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부사로 쓰일 때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말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때에’, ‘지금부터 앞으로’, ‘바로 지금’, ‘지금 또는 바로 지금’, ‘지금부터 앞으로’ 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제시된 정의를 보면 ‘지금’과 ‘이제’가 다 부사로 사용될 때는 ‘말하는 바로 이때’, ‘바로 이제’, ‘바로 지금’, 다 공통점인데, 반면에 조금 더 차이점 나는 것은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 하나 더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보다 ‘이제’는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가 하나 더 가지는 것이다.

또한, ‘지금’과 ‘이제’의 변별자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원표(2001)가 있다(왕단, 2015). 이원표(2001)에서는 ‘지금’과 ‘이제’의 담화기능을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원표(2001)는 “ ‘이제’라는 표현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돼 온 ‘발화시간 표기기능’ 이외에도 ‘사건시간’과 ‘담화시간’을 가리키는 시간 부사 및 담화표지로서 ‘지금’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담화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 선행연구와 사전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조선어 대사전」, 「연세한국어 사전」을 통해서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정리했는데 두 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하기에 사용에 있어서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된다. 한국어에서의 시간어는 모두 명사나, 부사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의 시간어가 명사와 부사 두 가지 품사로 다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과 “이제”도 이러한 성격을 띠는데 여기서 다만 부사의 경우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정리했는데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과 ‘이제’가 쓰일 수 있는 환경들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지금’과 ‘이제’의 의미를 서로 교체되어 다 사용될 수 있는 환경: 위의 사전을 통해서 정리된 ‘지금’과 ‘이제’의 의미 공통점은 ‘말하는 바로 이때’라는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가. 동생은 공부를 하다가 [지금/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나. 누나는 지난달에 졸업했는데 [지금/이제] 취직 준비를 해야 된다.
 다. [지금/이제] 9시이다.
 라. 그는 [지금/이제] 숙제를 하고 있다.
 마. 그는 [지금/이제] 막 수업을 끝내고 쉬고 있다.
 바. 그는 [지금/이제] 내 앞에 있다.

예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1가)에서 동생이 말하는 이때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예(1나)에서 말하는 그 때 누나가 취직 준비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1다)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이때 9시대의 의미를 나타냈다. 예(1라)에서는 그는 말

하는 그 때 숙제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예(1마)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때 쉬고 있다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1바)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 때 그 사람이 화자의 앞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여기서 “이제”와 ‘지금’이 다 “말하는 바로 이때에” 라는 뜻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이제”는 다 “지금”으로 서로 대치될 수 있다.

여기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과 ‘이제’ 두 개의 시간부사 다 ‘말하는 바로 이때의 시점, 즉 현재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교체되어 쓸 수 있지만 위에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같이 쓰일 때에도 의미상으로 조금 다를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 가. 동생은 [지금/이제] 일어났어요.

나. 엄마가 [지금/이제] 밥을 만들고 있어요.

예(2가)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일어났다는 의미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지금’과 달리 ‘단절’이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지나간 때의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와 관계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제’는 그 전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 좀 잤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기준에 일어났다는 의미를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뜻이 없다. 예(2나)를 보면 ‘지금’과 ‘이제’는 모두 말하는 이때의 밥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냈지만 ‘이제’는 “지금”과 달리 “단절”이라는 의미를 밝히고 있으며 그 전에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정 때문에 말하고 있는 기준에 밥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전의 해석에서 “이제”와 “지금”은 다 ‘현재 이 시점’을

나타내는 공통점과 ‘단절’이라는 의미 있는지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중에서는 이와 같은 공통과 차이점만 갖고 사용하면 역시 헷갈리게 될 수 있다. ‘지금’과 ‘이제’에 대해 선행연구와 말뭉치에서 나타난 사용 표현을 통해 ‘지금’과 ‘이제’는 단지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지 살펴 보겠다.

〈표20〉 말뭉치에서 나타난 ‘지금/이제’의 사용 양상

	지금	이제
현재	난 지금 밥 먹고 있다. 난 지금 간다. 난 지금 급해.	이제 하고 있다. 이제 간다. 이제 밥 먹는다.
미래	넌 지금 갈 거야? 난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청소하겠다.	이제 나 없어도 되겠지? 이제 신경 좀 써야 될 거야.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과거	지금 일어났어. 지금 들어왔어. 지금 공연 끝났어.	이제 완성됐어. 이제 이해했어. 이제 깨달았어.

위의 말뭉치에서 나타난 것 보듯이 ‘지금’과 ‘이제’는 현재시제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고 과거시제와 미래시제에도 흔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진희룡(2014)에서 ‘곧, 바로, 당장’등 부사가 ‘지금’과 함께 사용 가능 하지만 이러한 문장에서 ‘이제’를 쓰이면 어색하다고 설명했다.

(3) 가. [지금/?이제] 곧 그리 갈게요.

나.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이제] 바로 물어 보세요.

다. 서류를 좀 봐야 되니까 [지금/?이제] 당장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를 보면, ‘지금’은 ‘바로, 곧, 당장’ 등의 부사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발화자가 발화하는 바로 그 시점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예(3가)에서 지금 이 시점에 곧 ‘간다’는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예(3나)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 때 바로 물어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3다)에서 긴급 상황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때에 당장 메일 보내라는 행동을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하여, ‘이제’보다 ‘지금’은 화자가 말하는 그 시점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보다 ‘지금’을 쓰는 것 더 자연스럽다.

「연세한국어사전」과 「조선어대사전」에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지금’은 ‘오늘 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도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과거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이미, 벌써’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반면에 ‘이제’는 보통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의 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벌써’와 결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4) 가. 지금 벌써 진행되고 있어.

나. 지금 이미 하고 있어.

예(4가)에서 과거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4나)에서 과거부터 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이제’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위에 사전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보면 ‘지금’과 차이점 나는 것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만 사용될 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돈 다 썼으니 [?지금/이제] 그만 집에 가자.

나. 쓸 때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지금/이제] 박사가 되었다.

예문 (5가)에서는 돈이 다 쓴 ‘이제’ 전에 돈이 있다는 뜻이 포함하고 돈이 다 쓴 이때, 즉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뜻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집에 가지 않았으며 ‘이제 집에 가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5나)에서는 하고 있었던 행동을 그만하고 다른 내용이나 전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이제’가 현재 이 시점이라는 개념으로 원래의 행동, 상태가 달라지는 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제”란 기점 뒤에 새로 생긴 행동, 상태가 원래의 행동, 상태와 완전 상반된다는 대조적의미도 알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은 ‘이제’와 달리 이런 전후 대조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고 문장에서 표현한 사실만 단순히 기술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쓰이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제’는 예(5다)에서 박사가 “되었다”라는 동작으로 예전 안 되는 상태와 지금 상태로 바뀌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가. [?지금/이제] 안심해도 될 거야.

나. [?지금/이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야.

예문(6)을 보면 ‘이제’는 발화자가 말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만 나타내는 거 아니라 미래의 시점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6가)에서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된다”라는 동작이 일어나고 앞으로 안심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6나)에서 지금부터 “끝났다”라는 동작으로 앞으로 원래 했던 상태, 행동을 다시 안 하고 끝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가 상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상태, 행동이 시작하고 원래의 상태, 행동이 바뀌거나 끝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란 시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상태, 행동의 시작, 끝남, 바꾸는 변화의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이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 없다.

〈표21〉 ‘지금-이제’의 변별기준

분류	시간부사	지금	이제
의미적 특징	공통적 의미	‘말하는 바로 이때에’	
	개별적 의미	1. 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이제, 이 시간에 3.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	1. 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지금, 지금에 이르러 3. 지금부터 앞으로, 4.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통사적	과거형 시제	○	○

특징	현재형 시제	○	○
	미래형 시제	○	○
	‘이미, 벌써’와의 결합	○	×
	‘당장, 곧, 바로’ 등의 부사와 함께 사용 가능	○	×

이상 ‘지금’과 ‘이제’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과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서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표<19> 사전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터 앞으로’라는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서 쓰일 때 의미상으로 좀 다를 경우가 있다. 또한 ‘지금’은 의미상으로 ‘오늘 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의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료의미를 가진 ‘이미, 벌써’등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곧, 바로, 당장’등 부사와 사용할 때는 ‘이제’보다 ‘지금’을 쓰는 거 더 자연스럽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만 쓰는 거 아니고 과거 시제, 미래 시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지금’과 ‘이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한국어 ‘지금/이제’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겠다.

나. ‘지금, 이제’의 한중 대조

지금까지 ‘지금, 이제’의 한중 대조 연구 몇 개 있었는데 ‘現在, 当今’과 대조하거나 ‘目前, 現在’, ‘正在, 在, 正’과 대조하였으며, 하지만 대조하는

중국어도 시간부사인지는 아닌지 근거 제시도 잘 안 되어 있고 대응하는 중국어에 대해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뭔지 제시하고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 지, 한국어 시간부사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앞에 선정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現代韓中中韓詞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표22〉과 같다.

〈표22〉 ‘지금, 이제’와 대응되는 중국어

	이제	지금
現代韓中中韓詞典 〈현대한중중한사전〉	〈명사〉現在,目前 〈부사〉在	〈명사〉現在 〈부사〉在,正在
고려대 한중사전	〈명사〉現在,眼看,如今晚儿,這就	〈명사〉現,現在,目前,如今,当今,時下,現時
한국외대 학습사전	〈명사〉現在	〈명사〉現在,目前
네이버 중국어 사전	〈명사〉現在,剛才	〈명사〉現在,目前,当下,眼下 〈부사〉正在

표<22>에서는 ‘이제’와 ‘지금’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살펴보았다.

<現代韓中韓詞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이제’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現在,目前,眼看,如今晚儿,這就, 剛才’등이 있고 ‘지금’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現,現在,目前,如今,当今,時下,現時,当下,眼下, 在,正在’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22>에 제시된 네 사전의 뜻을 통해 ‘이제’와 ‘지금’ 대응된 중국어 많지만 주로 명사로 되고 있다. 부사로 된 중국어는 ‘在/正在’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과 ‘이제’에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在/正在’이다. 먼저 『中韓大辭典』에서 제시한 ‘在/正在’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3> ‘在/正在’의 사전적 정의

	在	正在
中韓大辭典 典 <중한대사전>	지금[막] ...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1.[부사] 지금 [한창] ...하고 있다. [동작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냄]
현대중국어	진행	1.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2. 진행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볼 때는 ‘말하는 바로 이때’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正在, 在’ 이에 대응되는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지금부터 그 이후의 시점’의 의미를 볼 때 대응되는 중국어가 없다. 또한, ‘正在/在’는 ‘...하고 있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작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뜻을 포함한다.

또한 <현대중국어>의 ‘在’, ‘正在’는 그 의미들이 매우 유사하고 용법은 상대적으로 다르게 쓰이는 용법 있고 유사한 용법도 또한 있다. ‘正在’는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와 일의 ‘진행’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으며, ‘在’는 일의 ‘진행’을 나타낸다. 즉 ‘正在’과 ‘在’의 의미를 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張亞軍 (2002)에서 ‘正在, 在’는 현대한자어 중에 긴밀한 관계가 가진 시간부사라고 지적하였다. ‘在’는 진행 상태를 표현하고 ‘正在’는 진행 상태와 진행 시간을 겸하여 가끔 바뀌어 쓰일 때도 있지만 현대한자어 중에 뚜렷한 차이점을 있다고 하였다.

또한 ‘正在/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는데 陸檢明, 馬眞(1985)에서 ‘正在/在’를 시제를 나타내는 실시간 시간부사를 지적하였으며 王力(1982), 呂叔湘(1982), 龔千炎(1994,1995)에서 ‘正在/在’는 지속상을 나타내는 시간부사라고 하였으며 동작이나 행위가 지속 상태나 진행 중임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張亞軍(2002)에서 ‘正在’는 근대중국어시기 ‘正’+‘在’라는 형식에서 발전하여 송나라 때 부사 용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송나라 이전의 ‘正在’는 부사 ‘正’과 동사 ‘在’의 결합 형식으로 ‘正’(부사)+‘在’(술어) 구조이고 그러다가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송나라 때 하나의 부사로 문법화 하였다.

賈改琴 (2015)에서 “ ‘在’는 최초의 뜻은 동사이었는데 어디에 존재함의 뜻으로 주로 어떤 상태의 지속성과 존재성을 강조하였으며 여러 변천 과정을 거쳐 당나라 이후로부터 시간부사, 동사, 개사 등 여러 품사로 변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 ‘正은 시간을 강조하고 在는 상태를 강조하여 正在는 시간과 상태를 겸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중국어 시간부사 ‘在, 正在’는 동작이나 행위의 진행

상태나 지속성을 표현하는 데 의미나 사용 특징에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在’는 주로 동작의 진행 상태나 지속성을 나타내고 ‘正在’는 ‘正+在’ 구조이고 동작의 진행시간이나 진행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표<24>를 통해 중국어 ‘正在, 在’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보통 사태조사 ‘着’과 시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呢’ 같이 사용하는데 현재시제 및 진행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着’의 의미적으로 볼 때 주제의 행위나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남을 표현한다.

먼저 ‘正在/在’는 교체되어 같이 사용 가능한 경우:

사전적 정의의 공통점 ‘...하고 있다’의 공통점을 통해 살펴보겠다.

(7) 가. 我只管說自己的，一抬頭潤民正在/在看着我。

나. 他正在/在看着我打球呢。

가. 나는 내 말만 하고 있었다. 머리를 들어보니 윤민이 마침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 그는 농구를 치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

예(7) 보면 ‘正在/在’는 주로 시제 기능을 담당하고 사태조사 ‘着’이 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가)은 구문의 말미에 어기조사 ‘呢’가 술어 동사 뒤에 출현한 ‘着’과 함께 술어 동사의 상 자질을 나타내주는 상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正在/在’는 한국어의 ‘...하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한국말의 ‘하고 있다’는 현재시제 및 진행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在’는 주로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正在’는 ‘正’과 ‘在’ 두

부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작 진행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진행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다. 예를 살펴보겠다.

(8). 가. 這几天學生在/? 正在考試。

나. 臉上雨水在流淌, 我不知道他是否在/? 正在哭。

가'. 요즘 학생들이 시험 치고 있어.

나'.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난 그가 울고 있는 지 아닌지 모르겠다.

예(8)(가,나)에서 요즘 학생들이 시험 치고 있는 것과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들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데 '正在'는 이런 특징이 없다.

(9) 가. 街上正在/? 在行走的女孩很漂亮。

가'. 길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여자가 너무 예쁘다.

예(9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행동의 진행 시간과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在'와 '正在'는 보통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①'在'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간부사 '一直(내내), 仍(여전히), 照樣(계속)'등 공기할 수 있지만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본다.

(10). 가. 他覺得他家里的電話一直在/?正在 被人竊听或录音

가'. 그는 자신 집의 전화기가 계속 도청 당하고 있다.

나. 在坐火車之前, 我回頭看見他還在/?正在 向我們揮手告別。

나'. 기차 타기 전에 머리 돌아올 때 그들이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예(10)(가와 나)를 보면 중국어의 경우 ‘在’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와 사용할 수 있으며 ‘正在’는 지속성을 가지지만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② ‘在’는 진행이나 지속성이 반복되는 같은 동작이나 행위를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每天(매일/날), 時刻(언제나), 時時刻刻(늘/시시각각)’등과 공기될 수도 있는데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쓰일 수는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11) 가. 她每天都在/?正在 念叨自己的儿子。

가' 그는 맨날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 在分手的十年里, 我時時刻刻都在/?正在 想念她。

나'. 헤어진 10년 동안에 난 늘 그녀 생각만 하고 있다.

예(11)(가와나)에서 ‘在’는 ‘每天’, ‘時時刻刻’과 같이 사용해서 지속성을 반복되는 같은 행위나 생각을 바로 표현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正在’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③ ‘在’는 이미 완료된 의미를 가진 시간부사 ‘已經(이미), 早已(벌써), 早就(벌써부터)’, 그리고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어기조사 ‘了’와 공기될 수

있는데 ‘正在’는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 (12) 가. 現在已經在/? 正在做了
가'. 지금 이미 하고 있다.
나. 現在早就在/? 正在宣傳了.
나'. 지금 벌써 홍보하고 있다.

④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 의심, 놀라움, 그리고 어떤 사실을 생기는
원인에 대한 물어보는 경우에는 ‘在’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 (13) 가. 我現在絕不是在/? 正在騙你.
나. 他現在不像是在/? 正在做檢查, 倒像是在/? 正在訴苦.
다. 他移居國外很多年, 國內却還有這樣的朋友在/? 正在關心他.
라. 這孩子爲什麼在/? 正在偷偷哭呢?
가'. 난 지금 절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나'. 그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고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것 같아.
다'. 그는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국내에서도 이렇게 잘해주는 친
구가 있는 줄 몰랐네.
라'. 이 아이는 왜 여기서 혼자 울고 있어?

예(13)(가,나,다,라)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 의심, 놀라움이나 원인
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正在’는 사용할 수 없고 ‘在’만 가능하다.

그런데 관형어로 표현할 때 문장에서 나타나는 빈도는 ‘在’보다 ‘正在’가

비교적으로 더 높다. 예를 살펴보겠다.

(14) 가. 正在用功學習的弟弟。

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생.

나. 正在看演出的游客。

나'.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관광객.

또한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 在’는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미래시제를 표현하는 시간부사 ‘將要, 就要, 要’와 같이 사용될 수는 없다. 예를 보겠다.

(15). 가. 난 지금/이제 출근하러 가겠다.

나. 난 지금/이제 밖에 나가겠다.

가'. 我?在/?正在要去上班

나'. 我?在/?正在要出門。

예(15) 한국어에서 “지금”과 “이제”는 미래 시제에 다 결합할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在’는 미래 시제와 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4〉 ‘지금’과 ‘이제’-- ‘在/正在’의 대조

분 류	언어	한국어		중국어	
	시간부사	지금	이제	正在	在
의미적 특징	공통의미	말하는 바로 이때			

	개별적 의미	1. 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이제, 이 시간에 3. 현재, 오늘날에 이르러	1. 말하는 바로 이때. 2. 바로 지금, 지금에 이르러. 3. 지금부터 앞으로', 4.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1. ... 하고 있다. 2. 진행 3.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1. ...하고 있다. [동작의 진행을 나타냄] 2. 진행
통사적 특징	과거형 시제	○	○	×	○
	현재형 시제	○	○	○	○
	미래형 시제	○	○	×	×
	‘一直, 仍’등 시간부사와 같이 사용 가능	○	×	×	○
	‘당장, 곧, 바로’등의 부사와 함께 사용 가능	○	×	×	
	사태조사 ‘着’과 시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呢’ 같이 사용 가능	×		○	○
	‘每天, 時刻’등과 같이 사용 가능	×		×	○
	‘已經, 早已’등 시간부사와 결합 가능	○	×	×	○
	지속성은 나타냄	×	×	×	○

지금까지 정리된 한국어 ‘지금’과 ‘이제’는 중국어 ‘正在/在’와 모두 ‘말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서로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 지금부터 앞으로’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좀 다르고 ‘지금’은 ‘오늘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의 이르기까지’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때 ‘이제’와 다를 경우가 있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에 사용할 때는 공기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는 과거 시제, 미래 시제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在’는 미래시제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위에 ‘지금’과 ‘이제’-- ‘在/正在’의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在/正在’에서 동작이나 행위가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 표현하고 ‘在’는 과거시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 미래시제, 과거시제와 다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正在/在’와의 의미상의 뜻과 달리 시간부사 ‘이제’는 ‘말하는 바로 이때’, 현재시제의 진행 상태를 표현한 외에도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 ‘지금부터 앞으로’의 뜻을 더 가지고 있고 ‘지금’은 ‘오늘날에 이르러, 예로부터 이제에 이르기까지’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초중급 중국인 학습자들이 ‘在/正在’와 ‘지금/이제’에 대해 서로의 의미차이를 모르고 혼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용상에도 중국어 시간부사 ‘在’는 ‘正在’와 달리 네 가지 특정한 결합 방법이 있으므로 한국어 시간부사 ‘지금, 이제’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지금과 이제’의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쉽게 범하는 경우가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2.2 ‘아까/방금’-- ‘剛才, 剛, 才, 剛剛’의 대조 분석

가. ‘아까/방금’의 의미 분석

먼저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국어사전」과 「우리말샘」을 통해 ‘아까/방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였다.

〈표25〉 ‘아까/방금’의 사전적 정의

	아까	방금
표준국어대사전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4)〈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5)〈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6)〈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네이버국어사전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에.

		3)〈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 4)〈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우리말 샘	1)〈부사〉조금 전에 2)〈명사〉조금 전	1)〈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부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부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4)〈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5)〈명사〉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6)〈명사〉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위에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아까’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과 「네이버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 명사로 쓰일 때나 부사로 쓰일 때나 의미는 모두 “조금 전”이라는 하나의 뜻을 제시하고 있다.

‘방금’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네이버국어사전」, 「우리말샘」에서는 명사로 쓰일 때나 부사로 쓰일 때나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 후” 등 공통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방금’은 부사로 쓰일 때와 명사로 쓰일 때가 혼동되어 쓰이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다 부사로 간주하고 두 단

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변별 방법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아까/방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손남익(1995)에서 ‘아까’는 과거시제를 내타낸다고 했다. 민현식(1999)에서는 시간부사를 시제부사와 상부사로 나누었는데 ‘아까’와 ‘금방’에 대해 대조하였고 시제부사의 하위분류인 직전선행시에 속한다고 하였으며 서정수(2005)에서 ‘아까’와 ‘금방’에 대해 시간 자유 부사류어의 하위분류인 시점/순간 부사류어에 속한다고 하였다.

최옥춘(2013)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아까/금방, 내내/계속, 자꾸/자주, 때때로/가끔’에 대해 대조 연구를 했으며 대응하는 중국어도 대조 분석을 하였다.

진희룡(2015)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아까와 금방’의 공기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한학철(2015)에서 ‘아까와 방금’의 정의를 통해 의미 차이를 분석하고 시간부사와 조사의 결합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까/방금’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아까/방금’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로만 대조하거나 부사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부족하였으나 사전적 정의로 했더라도 사전분석이 부족하거나 단어의 명사 제시나 부사제시 명확히 분류되지 않으며 ‘아까/방금’처럼 명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에 의미상으로 좀 달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언어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아까’와 ‘방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세히 대조하고 분석하여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가 뭔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아까’와 ‘방금’의 의미를 서로 교체되어 다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위의 사전을 통하여 정리된 뜻이 ‘아까/방금’의 공통점은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조금 전’이라는 특징을 통해 과거 시간을 나타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6) 가. 논문을 아까/방금 마쳤다.
나. 친구는 아까/방금 떠났다.
다. 그는 아까/방금 잠에서 깨어났다.

예문(16)을 보면 (16가)에서 논문을 ‘마치다’는 행위는 이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논문을 다 쓴다는 뜻이 나타났다. ‘떠나다’, ‘깨어나다’는 행위는 말하고 있는 시점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16나)에서 친구는 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떠나고 그 ‘떠나다’ 행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16다)에서도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이미 깨어난다. 그 행위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다. 정리해보면 ‘아까’, ‘방금’은 완료성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언어가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시간적 의미제시나 간격에는 약간의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아까’는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간격이 조금 멀고 ‘방금’은 짧은 시간 전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 (17) 가. 난 방금/아까 밥을 먹었다.
나. 샤오밍은 방금/아까 왔었다.

예문(17)(가,나)을 보면 ‘방금/아까’ 다 과거 상태를 표현하는데 시간

적 어감차이가 좀 다르다. (17가)에서 ‘방금’의 경우에는 ‘밥을 먹었다’는 행동은 그리 오래되지 않고 발화시 바로 조금 전의 뜻을 강조하고 시간상으로 말한다면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조금 전’하고 비슷하다. ‘아까’의 경우에는 ‘방금 밥을 먹었다’는 행동보다 시간이 꽤 지난 것을 가리키고 ‘방금’보다 훨씬 길지만 시간상으로 반나절이라는 말로 하기에 좀 짧은 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약 셋이나 넷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한다. (17나)도 마찬가지로 ‘방금 왔다간 것’보다 ‘아까’는 왔다간 시간이 꽤 지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방금’만 사용 가능한 경우:

〈표25〉 사전적 정의를 통해서 ‘방금’은 부사로서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전’이라는 뜻 이외에도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의 경우:

(18) 가. 방금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나. 밤길을 달려 방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예(18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은 하늘이 어둡다는 행동과 같은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18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는 행동은 도착한다는 행동과 같은 시점을 나타내고 있다.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19) 가. 방금 주먹질을 할 듯이 코앞에다 샅대질을 해 낸다.

나. 방금 도착할 것이라고 전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버스 안
이냐?

예(19가)에서 주먹질을 할 행동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19나)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착할 행동은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학철(2013)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미를 가진 ‘이제’와도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와의 결합은 부자연스럽지만 끝점을 나타내는 ‘까지’와의 결합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와 ‘까지’의 결합은 다 허용된다. 예를 살펴보겠다.

(20) 가. 방금/아까 까지 놀았었는데요.

나. 아까/?방금 부터 계속 나만 쳐다보는 사람.

다. 이제 방금/?아까 도착했어요.

라. 그가 이제 방금/?아까 청소했어요.

예문(20가)과 (20나)의 경우,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와 “까지”가 다 허용된다. “방금”은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의 결합은 부자연스럽지만 끝점을 나타내는 조사 “까지”와의 결합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가 지속된 시점을 의미하는데 끝점을 의미할 때는 ‘아까’와 ‘방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시작점을 의미할

경우는 ‘아까’만 사용할 수 있다. 예문(20)(다,라)의 경우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미를 가진 “이제”와도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앞에 조사나 다른 부사와의 결합은 제약된다.

〈표26〉 ‘아까-방금’의 변별기준

분류	시간부사	아까	방금
의미적 특징	공통적 의미	모두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개별적 의미	조금 전에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바로 조금 전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통 사 적 특징	완료상태에 가능 여부	○	○
	사건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간격	멀다	짧다
	‘부터’와 ‘까지’ 결 합 가능 여부	○	까지만
	‘이제’와 결합 가능 여부	×	○

본 논문에서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까’와 ‘방금’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조사와의 결합은 각각 살펴보았는데 공통점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조금 전’을 통해 행위가 완료된 상태를 표현하고 ‘방금’과 ‘아까’의 시간적 어감차이의 존재함도 제시하였으며 부사로서 ‘방금’은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후’의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아까’와 좀 다르다. 또한 ‘방금’은 뒤에 조사와 결합할 수 있고 앞에는 부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뒤에 조사만 결합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 시간부사 ‘아까’와 ‘방금’은 대응하는 중국어는 무엇인가? 존재한다면 한국어 ‘아까/방금’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아까/방금’의 중국어 대조

먼저 사전적 정의를 자세히 정리하면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現代韓中中韓詞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확인하였다.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를 살펴보면 〈표27〉과 같다.

〈표27〉 ‘아까/방금’과 대응되는 중국어

	아까	방금
現代韓中中韓詞典 〈현대한중중한사전〉	〈부사〉剛才, 才, 剛剛	〈부사〉剛才, 方才, 剛剛
고려대 한중사전	〈부사〉剛才	〈부사〉剛剛, 剛才, 才, 剛
한국외대 학습사전	〈부사〉剛才, 剛	〈부사〉剛才, 剛剛, 剛
네이버 중국어 사전	〈명사〉剛才 〈부사〉剛才, 剛	〈부사〉剛才, 剛剛, 方才

〈표27〉에서는 ‘아까/방금’에 대응되는 중국어를 살펴보았다. 〈現代韓中中韓詞典〉과 〈고려대 한중사전〉, 〈한국외대 학습사전〉,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아까’와 대응되는 중국어는 ‘剛才, 才, 剛剛, 剛’ 등이 있고 ‘방금’과 대응되는 중국어는 ‘剛剛, 剛才, 才, 方才, 剛’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27〉에 제시된 네 사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중국어를 선정하여 비교 하겠다. 즉 ‘아까’에 공통으로 대응되는 중국어는 ‘剛才, 才, 剛剛, 剛’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까’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剛才’와 ‘剛’이 있고 ‘방금’에 대응하는 중국어 시간부사는 ‘剛才, 才, 剛剛, 剛’가 있다.

먼저 『中韓大辭典』에서 제시한 ‘剛才, 剛, 才, 剛剛’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8〉 ‘剛才, 剛, 才, 剛剛’의 사전적 정의

중국어	한국어
剛才	〈부사〉 방금, 방금 전에, 금방, 금시, 이제, 막
剛	〈부사〉 1) 방금, 좀 전에 2) 막, 지금, 바로
才	〈부사〉 1) 겨우, 근근이 2) 방금(동작이 방금 발생했거나, 반대로 늦게 발생함) 3)...에야, 예야 비로소(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동작, 작용이 발생하게 됨을 표시) 4)...서야, 서야 비로소(어떤 조건, 상황 하에 동작이 발생.)
剛剛	〈부사〉방금, 방금 전에

위의 표를 보면 ‘剛才’, ‘剛’, ‘才’, ‘剛剛’은 공통적으로 ‘방금’, ‘방금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화자가 말하는 직전 시점을 나타낸다. 공통적인 의미 외에 ‘才’는 ‘...있어야 비로소’, ‘...서야, 서야 비로소’, ‘...에야, 예야 비로소’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으며 동작이나 행위가 방금 발생했거나, 반대로 늦게 발생됨을 강조한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 ‘剛, 剛剛’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발화자가 말하는 직전 시점을 나타내며 이어질 다른 행동 전의 발생함

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모두 화자 발화시와 사건발생시 두 시점의 시간적 간격 차이가 짧은 것을 표현하고 이어질 행위나 동작의 시작이나 완료 상태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다.

‘剛才’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미상으로 보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여 시점 의미를 강조하고 ‘그 때’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체언이라고 생각하는데 謝成名 (2009)에서 ‘剛剛’은 사건 발생시와 참조시간 간의 간격이 짧고 짧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였다. ‘剛才’는 시간상으로 고유된 기준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화자발화시나 기준시점은 고유한 자리에 위치하고 사람의 주관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剛才’와 ‘剛剛’은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이지만 시간적 간격에는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剛才’는 보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난 지 한나절 안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고 ‘剛, 剛剛’은 보통 짧게는 몇 초이나 길게는 몇 년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劉勇(1987)에서 ‘剛才’는 시점의 의미를 강조하고 동작이나 행위가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은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때’로 대체하여 쓸 수 있는 체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方才’는 ‘剛才’처럼 동작이나 행위가 지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 또한 ‘方才, 才’는 어떤 사건이 늦게 끝났거나 발생함을 강조하는데 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며 ‘這時候才.... (...서야 비로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盧福波(2005)에서 ‘剛才/剛剛’ 모두 동작이나 상황이 조금 전의 시간에 발생하였음을 의미하지만 ‘剛才’는 현재의 시간에만 사용, ‘剛剛’은 현재 이전의 어떤 시간에도 다 사용되며 ‘剛才’는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표시함으로 다른 구체적인 시간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張明瑩(2007)에서 ‘才’에 대한 부사 용법은 한대부터 나타났는데 수량이

적은 것을 강조하고 ‘僅僅(단지)’처럼 시간이 짧은 것을 강조하였으며, 송, 원시대에 거쳐서 원명시대에 부사 ‘才’는 또 다시 ‘剛才(아까)’처럼의 특별한 용법을 나타냈는데 청대 말기까지 이런 용법을 사용하고 사라졌으며 현대 중국어에는 어떤 행위가 늦게 발생함을 강조한다고 설명하였다.

于秀金 (2014)에서 ‘방금/아까’와 ‘了’에 대해 접미사 ‘了’는 말미 ‘了’와의 다른 체언 의미를 표현하는데 접미사 ‘了’는 완성체를 나타내고 문미 ‘了’는 시작체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진행상’과 ‘지속상’에 사용할 수 없고 문장에 시작구조의 완료성을 나타낼 때 ‘了’와 공유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학자에 따라 ‘剛才’에 대해 부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본 논문에서 부사로 간주하고 앞 선생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剛才, 剛, 才, 剛剛’에 대해 각 부사의 특징과 용법을 분석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살펴보겠다.

먼저 대응 중국어 같이 교체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표(28) 사전적 정의를 볼 때 다 ‘방금, 방금 전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1) 가. 친구는 아까/방금 전화했다.

나. 그는 아까/방금 조금 잤다.

다. 동생은 아까/방금 밥 먹었거든.

가’. 朋友 剛才/剛/剛剛/才打了電話.

나’. 他 剛才/剛/剛剛/才睡了一會兒.

다’ 弟弟 剛才/剛/剛剛/才吃了飯.

예문(21)을 보면 한국어에서 ‘아까, 방금’은 대응 중국어 다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21가’), (21나’)와 (21다’)의 경우 조사 ‘了’는 완료의 의

미를 나타낸다. 발화전에 시점의 뜻을 포함하는 ‘剛才, 剛, 剛剛, 才’를 셋 문장에 교체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조하고자하는 부분이나 어감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剛才’는 행위가 발화시 직전 시점에서 종료되었음을 의미하고 ‘剛剛, 剛’은 행위가 완성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剛’과 ‘剛剛’에 대해 공기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① 다른 동작이 일어나기 바로 조금 전의 발생함, 뒤의 항상 ‘就, 又’등과 같이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서 ‘才’와 ‘剛才’는 사용할 수 없다.

- (22) 가. 天剛/剛剛/?剛才/?才亮, 他就起床了.
 나. 他剛/剛剛/?剛才/?才起來, 就被老師叫住了.
 가. 날이 밝자 바로 일어났다.
 나. 그가 일어나자 선생님한테 불렀다.

예(22)(가,나)에서 ‘剛, 剛剛’은 동작이 일어나기 바로 조금 전의 뜻을 나타내는 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剛才’는 행위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거리상에 일정한 간격이 있으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才’는 동작이 늦게 발생함을 강조하므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간상으로 어느 정도를 나타냄으로 ‘恰好(딱 좋다, 딱 적당하다)’의 뜻을 표현한다. 이런 경우에 ‘剛才’와 ‘才’는 사용할 수 없다.

- (23) 가. 他剛/剛剛/?剛才/?才五歲就上學了.

나. 5点剛/剛剛/? 剛才/? 才好.

가'. 그는 5살이 되자 입학했다.

나'. 5시는 딱 좋다.

예(23)(가,나)에서 '剛/剛剛'은 어떤 사물에 대한 '딱 적당하다' 정도의 뜻을 나타낼 수 있으니 여기서 사용할 수 있으며 '剛才'는 과거 완료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才'는 보통 동작이 늦게 발생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여기서도 사용할 수 없다.

③ 겨우 어느 정도를 달성함으로 '僅僅 (단지)'의 뜻을 나타낸다.

(24) 가. 聲音很小, 剛/剛剛/? 剛才/? 才可以听到.

가'. 소리가 너무 작아서 단지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예(24)에서 '剛, 剛剛'은 정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있고 '剛才'는 동작 완료성을 나타내고 '才'는 동작 늦게 발행함을 강조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剛剛'과 '剛才'는 문장 끝에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了'와 부정사 '不'와의 결합이 가능한데 '才와 剛'은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25) 가. 小張剛才/剛剛/? 剛/? 才來了。

나. 你爲什麼 剛才/剛剛/? 剛/? 才不說。

가'. 샤오장이 방금/아까 왔다.

나'. 넌 왜 방금/아까 말을 안 했어?

‘剛/才/剛剛’은 문미에 과서시제를 표현하는 ‘了’의 사용법과 사건 발생 시와 화자 발화시의 간격 차이를 통해 ‘剛/才/剛剛’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겠다. ‘剛才’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26) 가. 그가 ?방금/?아까 한국에 떠난 지 한 달 됐다.

가’ 他? 剛才/剛剛/剛/才 離開韓國一個月。

나. 그가 ?방금/?아까 귀국한 지 6개월 됐다.

나’ 他? 剛才/剛剛/剛/才 回國半年。

예(26가’와 나’)에서 중국어로는 문미에서 과거시제 표현하는 ‘了’가 없기에 ‘才’는 이 문장에서 사용 가능한데 동작이 나타난 시점이 너무 늦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가’)와 (나’)에서 ‘剛剛/剛’은 짧은 시간적 의미도 표현하지만 가끔 오래된 긴 시간적 의미도 표현할 수 있어서 여기서 사용 가능하며 ‘剛才’는 반일 안에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剛才/剛/剛剛’은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나타낼 때 공기될 수 있지만 ‘才’는 이런 경우에서 상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27). 가. 방금/아까 까지 놀았었는데요.

나. 방금/아까 까지 앉아 있었는데요.

가’ . 剛才/剛/剛剛/?才 還在玩呢。

나’ . 剛才/剛/剛剛/?才 還在呢。

예문 (27)(가’와 나’)에서 ‘還…呢’는 ‘아직…아(어) 있다’의 의미로 조금

전까지 ‘놀다’와 ‘앉아 있다’ 이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어 있었음을 뜻한다. 이런 경우, 시간부사는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의미함으로 ‘剛才’와 ‘剛剛, 剛’을 사용할 수 있지만 행위가 늦은 시점에 발생함을 강조하는 ‘才’는 사용할 수 없다.

‘剛과 才’는 지금까지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낼 때 공기될 수 있는데 ‘剛才, 剛剛’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才’와 ‘剛’은 ‘一(자마자)’와 결합할 수 있는데 ‘剛剛, 剛才’는 결합할 수 없다. 예를 살펴보겠다.

(28). 가. 他剛/?剛剛/?剛才/才睡了一會兒。(現在還在睡)

나. 他剛/?剛剛/?剛才/才離開了幾分鐘。(已經離開, 目前不在)

다. 剛/?剛剛/?剛才/才一出門, 就碰見熟人了.

라. 剛/?剛剛/?剛才/才一吃飯, 就吐了.

가. 그는 방금/아까 조금 잤다. (지금도 자고 있음)

나. 그는 방금/아까 잠깐 떠났다. (이미 떠남, 지금 없음)

다. 방금/아까 집에 나가자마자 아는 사람을 만났다.

라. 방금/아까 밥을 먹자마자 토했다.

예(28)(가, 나)에서 ‘剛과 才’는 지금까지 자고 있는 행동과 떠난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剛剛, 剛才’는 동작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완료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가’와 나’)에서 주로 이미 일어난 상태와 지금 자리에 돌아온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와 라’)에서 ‘一’과 결합할 때는 ‘剛’과 ‘才’만 사용할 수 있고 ‘剛剛’과 ‘剛才’는 이런 경우에서 사용할 수 없다.

‘剛剛’은 사건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거리상에 짧은 간격을 나타낼 때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剛才’는 중국어 ‘從...就開始’와 결합해서 동작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29) 가. 아까/?방금 부터 계속 나만 쳐다보는 그 사람.

나. 아까/?방금 부터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그 중년 남자.

다. 이제 방금/?아까 도착했어요.

라. 그가 이제 방금/?아까 떠났어요.

가’. 從剛才/?剛/?剛剛/?才 就開始一直盯着我看的那个人.

나’. 從剛才/?剛/?剛剛/?才 就開始一直尾隨我的那个中年男人.

다’. ?剛才/?剛/剛剛/?才 到了.

라’ 他?剛才/?剛/剛剛/?才 離開了.

(29)(가와 나)의 경우, ‘아까’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내는 ‘부터’와 ‘까지’ 다 사용되지만 ‘방금’은 시작점을 나타내는 ‘부터’의 결합은 부자연스럽다. 또한 (29가’와 나’)에서 ‘就開始’는 ‘쳐다보다’ 이 행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문장에서 ‘剛才’만 사용 가능하다. (29다와 라)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명사와 부사의 의미를 가진 ‘이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아까’는 사용할 수 없다. (29다’와 라’)의 경우 ‘도착하다’는 행위가 오래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剛剛’을 사용할 수 있고 동작 발생시와 화자 발화시의 거리상에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기에 ‘剛才’는 사용할 수 없다. ‘剛’과 ‘才’는 문장 끝에 ‘了’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現在’와 같이 사용할 때는 ‘才’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살펴보겠다.

(30) 가. 그가 이제 방금/ ? 아까 떠났다.

가. 他現在 ? 剛才/ ? 剛/ ? 剛剛/才 離開。

예(30)에서 '방금'은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이제'와 결합할 수 있지만 '剛才, 剛剛, 剛'은 '동작이 지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므로 '現在'와 공기될 수 없고 '才'는 '동작이 너무 늦은 시점'을 강조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才'만 쓰일 수 있다.

〈표29〉 '아까, 방금'-- '剛才, 剛, 才, 剛剛'의 대조 분석

분류	언어	한국어		중국어			
	시간부사	아까	방금	剛	才	剛剛	剛才
의미적 특징	공통적 의미	모두 말하고 있는 시점(時點)부터 조금 전의 시간을 의미한다.					
	개별적 의미	조금 전에	1. 말하고 있는 시점보다 조금 전에. 2.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 3. 말하고 있는 시점부터 바로 조금 후	방금, 막, 바로	1. 방금 전에 2....에야 비로소 3. 겨우	방금, 방금 전에	방금, 방금 전에, 금방, 금시, 이제, 막

통 사 적 특 징	[+ 완 료] 가능 여부	○	○	○	○	○	○
	사건발생시 와 화자 발화 시의 간격	멀다	짧다	짧다 멀다	없음	짧다 멀다	멀다
	‘부터’ 와 ‘까지’ 결합 가 능 여부	○	까지만	×	×	×	부터 만
	‘이제’와 결 합 가능 여부	×	○	×	○	×	×
	지 속 성 을 나타냄	○	○	○	○	○	○
	문미(了)와 부정사(不)의 결합	○	○	×	×	○	○
	‘一(하자마 자)’의 결합	○	○	○	○	×	×
	정도를 나 타내는 恰好 (딱 좋다)’ ‘僅僅(단지)’와 의 결합	×	×	○	×	○	×
	‘조금 전까 지’의 시작점	○	○	○	×	○	○

본 논문에서 위에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아까, 방금’--
‘剛才, 剛, 才, 剛剛’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각 살펴보았는데 중국어

‘剛/剛剛’의 경우에 표현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짧은 시간의 시간적 간격 의미도 포함하고 길게는 몇 년이나 오래된 시간적 간격 의미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剛才’의 경우에 동작 발생시와 화자발화시의 시간적 간격 차이가 길지만 보통 동작이나 사건이 지나간 지 반나절 안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剛, 才’의 경우에 완료 상태를 표현할 때 다 쓸 수 있지만 문장에서 시제 표현이 쓰지 않은 경우에 ‘剛, 才’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才’는 동작이나 행위가 늦게 발생됨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 ‘방금’의 경우에 ‘조금 전’의 뜻을 강하게 내포하는 말이지만 시간상으로 20분부터 30분정도 넘기지 않은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며 ‘아까’의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난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방금’보다 시간적 간격 차이 훨씬 길지만 반나절이라기보다 약 3,4 시간이 넘기지 않은 상태로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는 중국어 시간부사 또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시간부사 ‘방금’은 앞에 ‘이제’ 와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데 중국어 시간부사 ‘才’는 앞에 ‘現在’ 와도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성을 나타낼 때 ‘剛’과 ‘才’는 결합되는 데 한국어에는 ‘아까/방금’은 다 허용된다. 그리고 중국어 시간부사 ‘剛, 剛剛’은 정도를 나타내는 ‘恰好, 僅僅’ 등도 같이 결합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는 없다. 그리고 ‘아까, 방금’의 경우에는 ‘그가 이제 방금 떠났다’ 이 문장에서 ‘이제’와 ‘방금’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대응하는 중국어 ‘他現在? 剛剛/? 剛才/? 剛/才離開’에서 동작이 지나간 지 오래되지 않은 것을 표현하는 ‘剛剛, 剛才, 剛’과 ‘現在’ 결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런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쉽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아까’와 ‘방금’의 나타나는 오류현상의 원인은 모

국어 간섭의 영향에 의한 것인데 이는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방금’, ‘아까’와 같은 의미로 인식하여 두 부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교체하여 사용할 것으로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특징을 고찰하여 대조함으로써 시간 부사에 표현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을 비교하였다.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논문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시간부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교육내용 구축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의 기술 내용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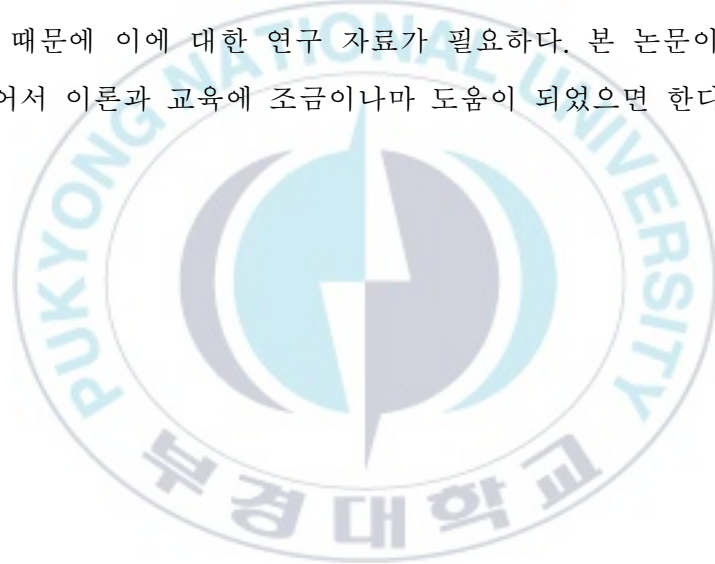
제 II 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이 장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과 중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한·중 시간부사의 대조를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의미 대조 분석을 다루었다. 이장에서

는 네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국립국어 원에서 개발한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비교하였다. 네 교재에서 추출한 시간부사는 교재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초급에 출현한 시간부사가 다른 교재에서는 중급, 고급에서 출현 하는 등 그 제시 순서가 많이 달랐으며, 이에 각 단계별로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이다(국립국어원, 2011). 이렇게 ‘지금’과 ‘이제’ ‘아까’와 ‘방금’ 2쌍의 시간부사를 선정되었다. 또한, 한국어 ‘지금’과 ‘이제’와 중국어 ‘正在/在’는 모두 ‘말하는 바로 이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의미상으로 쓰일 때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제’는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의미상으로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과 ‘이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와 사용할 때는 공기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시간부사 ‘正在’는 과거 시제, 미래 시제와 같이 사용할 수 없고 ‘在’는 미래시제에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아까’와 ‘방금’과 중국어 ‘剛才, 剛, 才, 剛剛’는 의 공통적 의미는 화자가 발화시부터 조금 전이라는 시점이고 모두 완료나 과거를 의미하는 문장에서는 ‘아까’와 ‘방금’을 교체하여 사용 가능하지만 완료를 나타내는 조사 ‘了’를 사용하여 조금 전 행위의 완료를 나타낸 경우 ‘剛, 剛才, 剛剛, 才’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제가 없이 완성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문장이면 ‘剛, 才’만 사용 가능하다. 행위의 결과 계속하는 상황은 ‘아까’나 ‘방금’이 다른 부사나 조사와 결합하여 표현하고 중국어에서는 ‘從....就開始’를 사용하여 행위의 결과가 계속하는 조금 전까지의 시작점을 의미하므로 ‘剛才’만 사용할 수 있다. ‘還...呢’를 사용하여 행위의 결과가 계속하는 시작점을 의미하므로 ‘剛剛’과 ‘剛才, 剛’만 사용할 수 있다. 화자 발화시와 행위 발생시의 시간적 간격 차이 몇 달이나 몇 년 오래된 경우에 ‘剛剛, 剛’만 사용할 수 있

고 ‘現在’와의 결합에는 ‘才’만 사용할 수 있다.

제Ⅳ장은 결론 부분이며 선정된 두 쌍의 한중 시간부사들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결합 구성 관계와 각각의 어휘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과 상황을 바탕으로 이들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이 두 쌍의 시간부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중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되는 중국어도 한국어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의미 및 여러 측면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위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이론과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참고 문헌

1. 사전류

- 中韓大辭典(1995),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中國語大辭典編纂室.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 盧福波(2005), 『現代中國語類意語辭典』, 松山出版社.
- 李武英(2005), 現代韓中中韓詞典.
- 新華字典(2011), 商務印書館.
- 고대민족문화연구원(2004), 『한중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서상규(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임.
- 연세한국어사전(1998),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임형재(2011), 『중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학습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3,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 논저

강춘영(2013), 『한중 시간부사 대조분석』,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현화(2000), 『코퍼스를 이용한 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17, 이중언어학회.

강현화(2001), 『빈도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2-1, 국제 한국어 교육 학회.

강현화(2011),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고산(2014), 『한중 시간부사의 대조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이금(1990), 『한국어 부사유의어 의미 차이』, 백록어문학회 7, pp.57-89.

곽 품(2012), 『韓國語와 中國語 時間副詞 對比 研究 : 은희경(殷熙耕)의 『새의 선물』과 신경숙(申京淑)의 『외딴방』 原本 및 中譯 本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한국어교육학 전공 대학원.』

권혜진(2008), 『현대 국어 시간 부사의 유의 관계 연구』: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광해(1989),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현상』, 탑출판사.

김광해(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미옥·정희정(2003),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어휘 오류 분석』,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 말뭉치, 제3회 한국어 교육 국제 워크숍.
- 김민수(1971), 『국어문법론』, 일조각.
- 김상태(1997), 『국어의 시간표현 어휘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청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 학고방.
- 김선희(1987), 『현대국어의 시간어 연구』 (Doctoral dissertation, 김선희).
- 김성화(2003), 『국어의 상 연구』 (개정판), 서울: 한신문화사.
- 김영자(1980), 『시간표현에 대한 의미론적 연구』 -현재시간부사와 시상을 주로 하여-, 청파문학 13,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회.
- 김진수(1985), 『시간부사 ‘ 벌써 ‘이미’와 ‘아직’의 상과 통사제약』, 한글 189, 한글학회.
- 김창구(2003), 『한일 한자 어휘의 대조 분석과 교육적 접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한자 어휘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화(2009), 『글짓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심리장애에 대한 분석』. 중국조선어문, 2009(3), 59-61.
- 김태우(1992), 『현대국어 시간부사의 낱말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기심. 고영근(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만 리(2010), 『한국어 교재의 시간부사 분석』 -유의어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금현(1989), 『현대 국어 유의어의 연구』: 유형분류 및 의미분석을 중

-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1999), 『국어의 시제어와 시간부사』, 개문사.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교육 15, 국제한
국어교육 학회.
- 민현식(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기반 언어 기능의 통합 교육과
정구조화 방법론 연구』, 국어교육연구 22, 서울대학교 국어교
육 연구소.
- 민현식(2010),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 및 방향』,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학술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재남(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한국어』, (주)문진미디어.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 양 단(2011), 『한중 시간부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대조 연구』, 한양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여위령(2012),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온연두(1985), 『현대국어 부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왕 단(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기술과 교육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왕 로(2011), 『한중 한자어 시간부사의 대조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우인혜(1991), 『우리말 시제/상 표현과 시간부사』, 한국언어문화 9, 한국

언어문화학회.

웅문도(2011), 『‘벌써’와 ‘이미’의 교육내용 구축과 사용 양상 연구』 :
중 국인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제한국언어문화학
과 대학원 석사논문.

이기갑(1995), 『한국어의 담화표지 ‘이제’』, 담화와 인지 1, 담화 인지 언
어학회.

이기용(1976), 시간론: 지금의 의미, 어학연구 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혜영(2012), 『한국어 교재의 유의어 분석』: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충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
사학위 논문.

조진희(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 시간부사 교수모형』, 상명
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현선(1986), 『한국어의 시간부사와 시상접미사와의 공존관계에 관한
연 구』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진희릉(20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시간부사 유의어 교육 연
구』,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최경아(2007),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춘(2013), 『한중 시간부사 유의어 대조 연구』 -한국어 중급 학습자
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현배(1961), 『우리말본』, 샘문회사.

최화정(2010), 『한국어 부사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시간부사와 정
도부 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학철(201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시간부사 교육방안 연구』 -‘벌써,
이미, 아까, 방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윤기(2009), 『한국어 상부사의 기능적 특성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20권1호, 한국어교육학회.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연구-시간부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중민족문화연구소.
- 최현배(1971), 『우리 말본』, 네 번째 고침판, 정음사.
- 황혜려(2012), 『漢字語 時間副詞의 意味에 관한 研究』,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대학원.
- Brown, H.D.(2007), Principle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이홍수 외 역(2011),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피어슨 에듀케이션코리아.
- Langacker, R. W. (1991). Cognitive grammar. Linguistic theory and grammatical description, 275-306.
- 姜文玉(2003), ‘韓語副詞狀語在漢語中的對應形式’,碩士論文,吉林大學 語言學及應用語言學.
- 金春花(2009), 現代韓中瞬間副詞對比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黎錦熙(1924), 『新著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呂叔湘(1946), 『中國文法要略』,商務印書館.
- 呂叔湘(2005), 『現代漢字八百詞』, 商務印書館
- 呂叔湘(2010),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劉巧雲(2007), 『韓中時點副詞對比研究』——以常用過去時點副詞爲中心, 延邊大學碩士學位 論文.
- 陸儉明, &馬眞. (1985), 『關於時間副詞. 現代漢語虛詞散論』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馬 眞(2003), 『‘已經’和‘曾經’的語法意義』,語言科學, (1) .
- 馬 眞(2004), 『現代漢語虛詞研究方法論』,商務印書館.

- 邢福義(1991), 『時間詞‘剛剛’의多角度考察』,中國語文. (1) .
- 黃伯榮, &廖序東(1997), 現代漢語(增訂二版) 下冊. MJ, 高等教育出版社,
- 太田辰夫(1958), 『中國語歷史文法』.
- 崔 健(2002), 『朝漢範疇表達對比』,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趙元任(1968), 《漢語口語語法》, 呂叔湘譯, 北京: 商務印書館.
- 王 力(1944), 『中國語法理論』,中華書局.
- 吳玉梅(2004), 『‘朝漢’現在‘義時間詞對比’』,碩士論文, 延邊大學漢語 言文字學.



LV BIN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본 논문에서 선정된 한국어 시간부사와 중국어 시간부사의 특징을 고찰하여 대조함으로써 시간 부사에 표현에 있어서 담당하는 역할을 비교하였다. 양국 간 시간부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중국어의 시간부사와 한국어의 시간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

국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을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 I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과 연구 방법을 밝혔다. 시간부사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차원의 교육내용 구축 연구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간부사의 기술 내용을 선행 연구로 살펴보았다.

제 II 장은 이론적 배경이다. 이 장에서 한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과 중국어 시간부사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기술하였고 한·중 시간부사의 대조를 살펴보았다.

제 III 장에서는 한국어 시간부사 대조 분석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네 교재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시간부사를 추출하여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와 비교하였다. 네 교재에서 추출한 시간부사는 교재별로 달리 나타났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초급에 출현한 시간부사가 다른 교재에서는 중급, 고급에서 출현 하는 등 그 제시 순서가 많이 달랐으며, 이에 각 단계별로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이다(국립국어원, 2011). 또한, 실험 분석 결과와 민현식(1999)의 분류 기준에 따라 ‘지금/이제’와 ‘아까/방금’을 본 논문의 유의어의 쌍을 선정되었다. 사전적 정의 및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금/이제’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 ‘在/正在’와 ‘아까/방금’ 대응되는 중국어 시간부사 ‘剛剛/剛才/剛/才’를 선정하여 한중 시간부사의 각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 선정된 본 논문의 두 쌍의 한중 시간부사들의 사전적 정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결합 구성 관계와 각각의 어휘가 갖는 서로 다른 특징과 상황을 바탕으로 이들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이 두 쌍의 시간부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바람이다. 중국어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응되는 중국어도 한국어와 똑같다고 생각하고, 대응되는 중국어 의미 및 여러 측면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위와 같은 측면에 있어서 이론과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